

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인적 자원 질적 성과측정 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사례조사 연구

2014. 12.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사례조사 연구

2014년 12월 인쇄

2014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전화 02-760-4500, 600

팩스 02-760-4707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사례조사 연구

/ 2014. 12.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사례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주 관 기 관 : (사)문화다움

책임연구원 : 추미경((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공동연구원 : 이상민(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정은주(서울대학교/국립외교원 초빙교수)

선임연구원 : 조아영((사)문화다움 선임연구원)

연 구 원 : 김소영((사)문화다움 연구원)

연구보조원 : 박민하((사)문화다움 위촉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장

제1절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6
1. 연구배경	16
2. 연구목적	16
제2절 :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17
1.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17
2. 중견예술가 대상 아르코 지원사업의 질적 성과 사례추적	18
제3절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9
1. 연구방법	19
2. 기대효과	20

제2장 예술인적자원을 둘러싼 환경 검토

제1절 : 예술인적자원 지원 관련 현황 검토	22
1. 문화예술 공공지원 현황	22
2. 예술인적자원 공공지원 수혜 현황 및 예술가 인식	25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지원 현황	27
제2절 : 예술인적자원 성과관리시스템 검토	34
1.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34
2. 예술인적자원 성과관리 현황	36
제3절 :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	41
1. 질적 연구방법론 개요	41
2.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선행연구 검토	52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제1절 : 예술인적자원 양적·질적 성과에 대한 이해	56
1. 예술인적자원 양적·질적 성과유형 및 성과지표 분석	56
2. 예술가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질적 성과관리의 필요성	66

제2절 : 예술가의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방향	69
1. 질적 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	69
2.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방향	70
3. 본 연구에서 연구범위 및 목표	73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제1절 : 예술가 질적 성과 사례추적조사 설계	77
1. 예술가 사례추적조사 대상 선정	77
2. 예술가 사례추적조사 설계	80
제2절 :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사례추적 파일럿 실행	84
1. 예술가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84
2. 파일럿 실행 분석 결과	98
제3절 : 시사점	104
제5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관리 방안 및 정책제언	
제1절 : 예술가 질적 성장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107
1.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 추진방향	107
2.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로드맵	107
제2절 : 예술인적자원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11
1. 예술가의 성장 단계 및 유형을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	111
2.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의 예술가지원사업 추진	112
참고문헌	115

표 차례

〈표 1〉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22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23
〈표 3〉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25
〈표 4〉 지원금 수혜비율	25
〈표 5〉 창작활동 여건 인식	26
〈표 6〉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단체)이 해야 할 일(2009년과 비교)	27
〈표 7〉 예술인 지원사업의 기초변화	28
〈표 8〉 문예진흥기금 사업체계 변화(2006~2013)	30
〈표 9〉 1974~2001 예술인지원사업 ‘창작진흥’ 부문 장르별 지원건수	31
〈표 10〉 2002~2010.8 예술인지원사업 장르별 수혜자(개인·단체) 비중	31
〈표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분야(장르) 구분 변화	32
〈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분야 및 세부장르 현황	33
〈표 13〉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대상 단위사업	36
〈표 14〉 문예진흥기금 평가체계 기준	37
〈표 15〉 전략평가 부문 평가지표	38
〈표 16〉 사업평가 부문 평가지표	39
〈표 17〉 질적연구에 대한 개념 저의	40
〈표 18〉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관점에서의 특징적 차이	40
〈표 19〉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비교	41
〈표 20〉 질적연구방법론의 특징	42
〈표 21〉 질적 연구의 유형	43
〈표 22〉 심층인터뷰의 유형	44
〈표 23〉 질문 옵션 매트릭스	45
〈표 24〉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성과지표	47
〈표 25〉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성과지표	52
〈표 26〉 영아트프론티어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2009~2011)	56
〈표 27〉 영아트프론티어 지원사업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계량적 성과항목	57

〈표 28〉 문예진흥기금의 영향에 대한 예술가 인식조사 지표	61
〈표 29〉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61
〈표 30〉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 유형	62
〈표 31〉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	65
〈표 32〉 심층인터뷰 대상 예술가 1차 선정기준	70
〈표 33〉 심층인터뷰 대상 예술가 2차 선정기준	78
〈표 34〉 예술가 심층인터뷰 질문 예시	78
〈표 35〉 예술가 심층인터뷰 내용 및 추진목표	81
〈표 36〉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 가능지표	83
〈표 37〉 예술가 질적 성과 유형화(예시)	99
〈표 38〉 예술가 환경 영역별 질적 성과지표 분석 및 양적 성과지표 비교	101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추진 프로세스	19
[그림 2]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재원 변화	24
[그림 3]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	71
[그림 4]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프로세스	74
[그림 5] 예술가를 둘러싼 환경	100
[그림 6] 예술가 질적 성장 조건	104
[그림 7]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로드맵	108

제1장 서 장

제1장

서 장

제1절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3절 : 연구추진 프로세스 및 기대효과

1. 연구추진 프로세스
2. 기대효과

제1장 서 장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예술지원의 당위성 및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관리 필요
 - 예술인력에 대한 환경이 전통적 개념의 예술 활동에서 나아가 예술적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각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술지원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예술지원에 대한 양적 성과에 비해 성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확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따라서 예술지원의 선순환적인 장기적 관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적자원의 양적인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 개발 필요
 -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나,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연구수준은 다소 미흡한 편임. 특히, 예술인력을 대상으로 질적인 성과를 추적하기에는 문화예술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따라서 질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연구목적

-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방법론 기초마련
 - 양적인 성과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한 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질적 성과측정의 당위성을 파악함.
-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예술가 사례 추적연구의 파일럿 실행
 - 아르코 지원사업 경험 예술인 중 대표 중견예술가를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사례 추적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예술지원사업과 연동된 질적 성과의 측정 가능성 및 경력경로 추적의 근거를 모색함.

제1장 서 장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1.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 예술인의 예술분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 설계

-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예술인 지원사업의 변화를 지원방식/장르/지원대상/정책성격/운용기금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¹⁾.

□ 예술인 특성에 맞는 유형별 사례조사방법론 개발

- 질적연구방법론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과학적인 접근방법(양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인식의 증대, 과학철학자들의 연구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반성의 촉구, 1960년대 후반의 현상학과 관련된 사상의 확산 등의 요인이 주요 배경이 되었음. 이후 질적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질적 방법으로는 관찰, 심층면접, 개인기록의 분석, 참여관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이 있음.
- 주요 특징으로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 강조, 사건·행동 등을 그것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이해, 과정적 측면의 강조, 융통성과 비구조적 성격 등이 있음. 따라서 양적 조사가 주로 가설을 검증하는데 용이한데 비해 질적 조사는 주로 특정한 주제, 관계 및 패턴을 발견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 추미경 외(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장 서 장

2. 중견예술가 대상 아르코지원사업의 질적 성과 사례 추적

□ 아르코 예술인 지원의 모집단 설정 및 기초조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중 조사 범위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선별의 근거를 마련함.
- 장르별 지원규모, 세부장르 파악, 장르별 수혜자 개인 단체 비중을 고려함.

□ 아르코 지원사업 경험 예술인 중 대표 중견예술가 선별 및 추적

- 모집단 설정 및 기초조사를 통해 도출된 아르코 지원사업 경험 예술인 중 2~3명의 실질적인 대표 중견예술가를 선별함.
- 선정된 대표 중견예술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때의 심층인터뷰는 비공식 대화면접(informal conversation interview), 면접지침 접근법(interview guide approach), 표준화 개방형 면접(standardized open-ended interview) 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적 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예술가 관련 공적자료가 지닌 계량적 측면과 사적 자료 추적의 매칭을 통하여 간과될 수 있는 무형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함.

□ 아르코 지원사업의 경험과 예술인의 성장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

- 아르코 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경력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예술지원의 향후방향성을 파악하도록 함.
- 예시) 양적인 성과에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협력, 문화예술인 인지도,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창작 여건의 개선, 작품에 대한 영향 등

제1장 서 장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 방법

□ 문헌자료 분석

- 아르코 지원사업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헌자료 검토
- 지원 분야에 따른 대상별 종합적 분석 및 참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 양적 방법론/질적 조사 방법론에 대한 국내외 문헌 검토

□ 혼합적 사례분석 연구

- 모집단 기준을 통해 선별된 2-3인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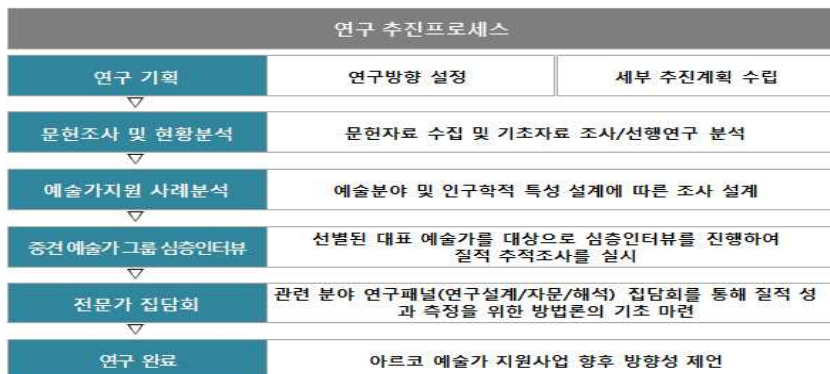
□ 중견 예술가 그룹 심층인터뷰

- 선별된 대표 예술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질적 추적조사를 실시
- 필요할 시 다른 예술가를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연구내용을 보완

□ 관련 분야 연구패널 구성

- 연구패널로 구성된 조사방법론 전문가, 예술인 지원사업 정책 전문가가 결합되어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연구내용을 뒷받침

[그림 1] 연구추진 프로세스



제1장 서 장

2. 기대효과

- 아르코의 질적 성과관리를 통한 예술지원의 당위성 및 근거의 모색
 - 질적 성과관리를 통해 예술지원의 정책성과를 도출하고 정책추진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유의미한 지원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 향후 본격적 연구추진의 정책근거를 확보
-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기초 구축
 - 공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예술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정책 및 행정 관계자들과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현대사회의 예술 가치를 제고
- 아르코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모색 및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의 토대 마련
 - 대표사례를 추적함으로써 경력경로 개발의 토대 마련 및 향후 환류 기대 가능
 -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아르코 지원사업의 향후 개선방향 및 정책적 함의 확산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 검토

제1절 : 예술인적자원 지원 관련 현황 검토

1. 문화예술 공공지원 현황
2. 예술인의 공공지원 수혜현황 및 예술가 인식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 지원사업 현황

제2절 : 예술인적자원 성과관리시스템 검토

1.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2. 예술인적자원 성과관리 현황

제3절 :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

1. 질적 연구방법론 개요
2.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제1절 예술인적자원 지원 관련 현황 검토

1. 문화예술 공공지원 현황

가. 중앙정부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팽창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회문화서비스 확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예산대비 점유율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표 1〉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A/B)	0.95	1.08	1.12	1.14	1.19	5.8
문화체육관광부 재정(A)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9.3
정부재정(B)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3.2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재정기준 : 예산+기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41,048억원으로 정부예산대비 점유율은 1.19%임. 이 중 문화예술부문 재정은 16,793억원으로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중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009년 2조 8,746억 원에서 2013년 4조 1,048억 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음. 이중 예산은 2009년 1조 6,665억 원에서 2013년 2조 2,201억 원으로 33%, 기금은 2009년 1조 1,2081억 원에서 2012년 1조 8,847억 원으로 56% 증가함(2012예산운용계획 기준). 2013년 재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2012년도에 비해 568억 원(3.5%) 증가한 1조 6,793억 원이며, 이는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예술인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한글박물관 건립,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국가상징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인프라 확충 등에 기인하였음.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지출규모)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9.3%
예산	16,665	18,167	19,604	20,933	22,201	7.4%
기금	12,081	13,580	14,954	16,261	18,847	11.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9.3%
문화예술부문	11,275	13,266	14,552	16,225	16,793	10.5%
관광부문	8,944	8,901	9,257	9,829	10,964	5.2%
체육부문	6,431	7,303	8,403	8,634	10,744	13.7%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096	2,277	2,346	2,506	2,548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기금으로써 문화예술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수익금 중의 일부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음²⁾.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모금이 시작되어 2001년까지 지원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었음.
- 사회전반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겪었던 IMF 이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2년 문예진흥기금이 공공기금화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구조 및 예산체제가 전면 개편됨. 2000년 이후 연평균 8% 가량 증가하던 문예진흥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모금제도가 폐지되고(2003.12.31.) 해마다 조성액이 감소하게

2) 이립 외(2013), 『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1.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되었음³⁾.

- 2004년 1월 1일자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복권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기존 조성된 기금 이자수익과 복권기금을 주 재원으로 운영하게 됨.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가 확정되면서 대체 재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복권관련 수익금의 일부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 지원사업의 재원변화를 종합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재원 성격이 변화해왔음.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설치되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시작되었음. 그리고 이 기금은 2002년 문예진흥기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면서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의 예술인 지원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었음.
-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대체하여 복권기금이 2004년부터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입되면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지원사업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음.

[그림 2]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재원 변화



3) 추미경 외(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66.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문예진흥기금은 공공재원으로서 예술 활동의 역량강화 및 문화향유권 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제고를 위하여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⁴⁾.

〈표 3〉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1973 ~ 200 0	2001	200 2	200 3	200 4	200 5	200 6	200 7	200 8	200 9	2010	2011	2012	2013
조성 액	997, 255	87,0 41	98,2 64	96,5 23	96,3 51	96,0 40	98,4 09	98,5 68	64,9 06	57,8 24	88,1 15	108, 547	116,7 10	138, 168
운용 액	621, 879	61,9 21	62,7 03	26,7 55	74,9 21	130, 381	136, 536	119,7 42	89,4 38	92,9 68	163, 254	144, 273	127, 535	150, 9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 예술인의 공공지원 수혜현황 및 예술가 인식

- 문화예술인의 공공지원 수혜비율은 27.7%임.
-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금수혜비율은 중앙정부 3.1%, 지방자치단체 14.3%, 문화예술위원회 11.8%, 기타공공기관 5.7%, 기업 3.5%, 그리고 개인후원자 5.5%로 나타남.
 - 이를 토대로 지원금 수혜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15.9%, 공공영역(정부+문화예술위원회+기타공공기관) 27.7%, 민간영역(기업+개인후원자) 8.1%, 전체 31.9% 였음.
 - 2006년, 20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공공지원금 수혜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4) 정광렬(2008), 『예술분야 사후지원방식 평가·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3.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표 4〉 지원금 수혜비율

지원처	2012년	2009년	2006년
중앙정부(a)	3.1%	1.6%	1.8%
지방정부(b)	14.3%	8.1%	8.8%
문화예술위원회(c)	11.8%	4.0%	6.6%
기타 공공기관(d)	5.7%	2.0%	2.6%
기업(e)	3.5%	1.3%	1.9%
개인(f)	5.5%	3.2%	4.1%
정부(A) $A=a+b$	15.9%	9.0%	10.2%
공공(B) $B=A+c+d$	27.7%	13.1%	16.4%
민간(C) $C=e+f$	8.1%	4.1%	5.2%
전체(D) $D=B+C$	31.9%	15.5%	19.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의 여건 모두에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았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기회, 외부의 창작활동규제, 문화예술인(작품)에 대한 지원 정도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적었음.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평가, 창작 발표 기회, 외부의 창작활동 규제, 문화예술 활동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늘었음.

〈표 5〉 창작활동 여건 인식

창작활동여건	2012년			2006년		
	만족	불만	평균	만족	불만	평균
사회적 평가	17.4%	46.6%	2.55	19.0%	37.7%	2.73
창작발표 기회	7.7%	67.2%	2.15	14.3%	57.2%	2.42
외부의 창작활동규제	25.3%	31.7%	3.10	46.2%	18.5%	2.67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3.0%	84.7%	1.68	3.4%	81.6%	1.80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	1.0%	91.7%	1.45	1.7%	85.2%	1.6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예술인의 의식과 문화예술정책 평가와 관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인(단체)가 해야 할 일로 ‘정실주의·부패청산’이 31.6%, ‘예술교육 수준향상’이 14.1%, ‘과시적 일회성 행사 자제’가 12.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이 11.6%로 조사됨. 2009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실주의·부패청산’이라고 대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6〉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단체)이 해야 할 일(2009년과 비교)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인의 역할	2012년 조사	2009년 조사
정실주의·부패 청산	31.6%	26.0%
예술교육 수준향상	14.1%	13.9%
과시적 일회성 행사 자제	12.9%	14.6%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11.6%	12.9%
전통문화 관심과 계승	11.2%	8.1%
예술경영 마인드 확산	7.1%	12.6%
문화예술의 세계화	5.9%	3.9%
문화산업 연계방안 모색	5.7%	7.2%
기타	-	0.9%
계	10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예술인들의 63.0%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남. 문화예술인들의 52.5%는 자신들의 의견이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반영된다’는 응답은 6.7%로 나타남.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정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음.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 지원사업 현황

가. 예술인 지원사업의 변화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방식, 예술장르 구분방식, 지원대상, 정책성격, 운용자금 등에 따라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음.
- 지원방식에서는 1973년 설립 이후 2000년대까지 ‘예술장르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사업유형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예술지원을 받는 장르의 구분은 설립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02년 이후로 다원예술이 추가되었고, 2005년도 이후 미술이 시각예술로 전환되었음.
- 지원대상에서는 문화예술 창작자 중심의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1980년대 말 문화민주화 이슈의 등장, 1990년대 이후 관객개발 및 예술향유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점차 예술향유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지원정책의 성격은 민족문화 창달 및 민족주체성을 중요시하였던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면서 1990년대 이후로는 전통문화예술에서 현대문화예술 영역으로, 예술창작 정책에서 문화복지 정책으로 점차 주안점이 확장되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2004년 1월 1일 부터)되고, 복권기금이 새롭게 전입되면서 문화복지 관련 예술지원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왔음.

〈표 7〉 예술인 지원사업의 기초변화

구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3-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지원방식	장르 중심				사업 중심											
장르구분	문학				문학			문학								
	미술				미술		→	시각예술 (명칭 변경)								
	연극				연극			연극								
	무용				무용			무용								
	음악				음악			음악								
	전통예술				전통예술			전통예술								
				→	다원예술 (신설)			다원예술								
	문화일반				문화일반			문화일반								
지원대상	80년대 말 ‘문화민주화’ 용어 등장															
	문화예술 창조계층 ⇨ 문화예술 향유계층으로 확대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정책성격	전통문화예술 ⇨ 현대문화예술 중심														
	창작지원 중심 ⇨ 문화복지 차원으로 변화														
운용기금	문예진흥기금(1973~)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복권기금 진입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문화예술진흥 40년 지원정책 연구(40년사)』 참조 재구성

나. 예술인 지원 사업체계의 변화

- 예술위는 기존의 장르별 사업체계를 2002~2004년 3년간 4대 성과목표, 그리고 2005~2006년 2년간 5대 성과목표를 토대로 한 사업단위별 지원체계로 개편하였음.
- 4대 성과목표는 ‘예술창조역량 강화’(‘02 ‘예술창작 진흥’),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임. 한편 5대 성과목표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의 세부목표 중 하나였던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을 성과목표인 ‘지역문화 활성화’로 독립시키게 됨. 예술위의 출범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사업 체계 및 예산편성 체계는 다시하번 큰 변화를 겪게 됨.
- 2012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의 사업체계는 5가지 단위사업인 「예술가 창조역량강화사업」, 「문화예술공간운영사업」, 「생활속 예술활성화사업」,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어왔으며, 2013년부터 현재에는, 「예술가 창조역량강화사업」, 「생활속 예술활성화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사업」의 4가지 단위사업으로 사업체계가 변화하여 추진되고 있음.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표 8〉 문예진흥기금 사업체계 변화(2006~2013)

2006	2007	2008	2009	2010~2012	2013
예술창조역량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 개척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예술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지원시설 운영)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공간 운영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예술의 사회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생활 속의 예술활성화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매개활동 지원 및 기반조성)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다. 예술인 지원사업의 규모변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이후 40여 년간의 예술인 지원사업 규모를 추산해 보면, 1974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총 36,280건의 사업에 대해 총 1조 2,687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대상의 중복성을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지원사업이 예술인 참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단체)이 여러 번 지원받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DB로 구축되는 예술인(단체)의 건수는 36,289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장르별 지원규모는 1974년~2011년까지의 현황과 2002년 이후의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1974년부터 2001년까지 28년간 지원규모는 총 17,530건/약 3,995억 원임. 이 기간 동안 예술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창작진흥, 문화향수, 지역문화, 문화예술국제교류로 구분되며, 부문별 지원규모는 창작진흥(11,570건 / 263,157,337천원), 지역문화(3,907건 / 95,740,391천원), 문화향수(1,842건 / 21,688,354천원), 문화예술국제교류(211건 / 18,915,538천원)순으로 나타남⁵⁾.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직접적인 예술인 창작지원 부문인 ‘창작진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1974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르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창작진흥’ 부문 장르별로 지원건수는 문학(3,809건), 문화일반(2,813건), 시각예술(1,226건), 전통예술(1,146건), 음악(833건), 무용(686건), 연극(560건) 순으로 파악되었음.

〈표 9〉 1974~2001 예술인지원사업 ‘창작진흥’ 부문 장르별 지원건수

(단위: 건)

구분	문학	문화일반	시각예술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극
지원건수	3,809	2,813	1,226	1,146	833	686	560

- 설립 이후 큰 변동이 없던 지원 장르는 2002년 이후로 ‘다원예술’이 추가되었고 2005년도 이후 ‘미술’이 ‘시각예술’로 전환되었으며, 예술장르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지원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2002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예술인지원사업의 장르별 수혜자의 개인 및 단체 비중은, 대부분의 장르에서 개인보다는 단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예술일반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단체 지원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개인 창작에 대한 지원이 많은 시각예술과 문학의 경우 타 장르에 비해 개인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예술의 경우에는 타 장르와는 달리 단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지원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2002~2012.8 예술인지원사업 장르별 수혜자(개인·단체) 비중

(단위: 건)

구분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개인	1,458	1,775	247	303	205	444	191	250
단체	1,905	1,286	1,763	1,199	1,880	2,068	587	2,808
합계	3,363	3,061	2,010	1,502	2,085	2,512	778	3,058

5) 추미경 외(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70.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십년간 지원규모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모든 장르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무용 123% 증가에서 예술일반 668%에 이르기까지 그 증가폭이 매우 큼.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원건수의 증가율 보다는 지원금액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 건수 대비 지원 금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예술지원 정책에서 소액다건 위주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예술 현장의 문제의식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예술지원에서 집중과 선택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라. 예술인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수혜자의 범위는 지원사업의 지원분야(장르) 구분에 따라 규정지을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지원분야(장르)는 문학, 미술,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의 여덟 가지 장르의 큰 틀 안에서 시대별 예술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음. 장르 구분 변화의 주요 내용은 장르 명칭의 변경, 장르 신설, 특정 장르 지원의 타 기관 이관 등으로 인한 장르 통폐합 등임.
- 1974년 이후 2002년까지는 7개 장르로 유지되다가 2002년에 다원예술이 신설되어 8개 장르로 구분되었고, 2005년에는 미술에서 시각예술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2010년에는 문화일반이 예술일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표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분야(장르) 구분 변화

1974	2002	2005	2010~현재
문학	문학	문학	문학
미술	미술	시각예술(변경)	미술
연극	연극	연극	연극
무용	무용	무용	무용
전통예술	전통예술	전통예술	전통예술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다원예술(신설)		다원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문화일반		문화일반	→	예술일반(변경)

- 현재 예술위 지원 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8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 장르로 나뉘어져 총 85개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분야 및 세부장르 현황

지원분야	세부장르
문학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동시), 아동문학(동화) (문)평론, (문)기타(기획,종합등), 장편소설, 중편소설,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평론, 종합, 기타,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시각예술	한국화, 서예, 양화, 판화, 조각, 설치,영상매체, 사진, 공예, 건축 평론, (시)기타(기획,종합등), 전시, 창작체험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non_verbal),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연)평론, (연)기타(기획,종합등), 연극공연, 연기
무용	한국무용(창작_전통), 현대무용, 발레, (무)평론, (무)기타
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음)평론, (음)기타, 동요, 합창 중창, 작곡, 기악-건반, 기악-현악, 기악-관악, 기악-타악
전통예술	국악기악(정악,민속악,창작음악), 국악성악(판소리,창곡,전통음악창작곡,국 극,민요,가곡,가사,시조), 풍물,사물놀이, 전통민속, 전통공예 (전)평론, (전)기타(기획,종합등), 국악공연, 작곡
다원예술	다원예술, 종합예술
예술일반	예술일반, 전문축제, 시민축제, 비보이댄스, 미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기타, 발간, 연예

자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의 지원분야 및 세부장르 코드값을 기준으로 함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사업 수혜자 (의 직업적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지원분야(장르) 및 세부장르 현황 등을 통해 지원사업 수혜자의 직업 영역이 문화예술의 창작제작교류, 문화예술의 매개유통, 문화예술의 소비참여 등 문화예술의 생산에서 유통, 향유에 이르는 전체 순환주기 (culture cycle)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함.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제2절 예술인적자원 성과관리시스템 검토

1.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가. 성과관리의 개념과 의의

- 성과 관리란, 정부 업무의 추진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⁶⁾.
- 즉,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 개선이나 자원 배분, 개인의 성과 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 잘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나. 성과관리의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정책의 결과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주어진 업무를 절차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등의 투입과 집행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관리하였음.
- 국민들의 기대수준 향상에 따른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수입이 부족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정부가 국가 간 경쟁 및 빠른 기술 진보 등의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증대되었음. 이렇듯 정부의 효율성 제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함.

6)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 성과관리의 정의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1990년대 후반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정보화평가 등 기관 대상 결과지향적인 성과관리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였고, 2003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 2004년 10월부터는 이를 직무성과계약제도로 발전시켜 공무원 개인에게까지 성과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해오고 있음.
- 또한 피평가기관의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감소 등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음.

다. 성과지표의 이해

- 성과지표는 개인 또는 조직이 사업이 지향하는 임무 또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였는지 또는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성과관리의 기본 체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됨
 - 전략목표란 기관의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의미하며,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주요 사업이나 사업 진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수의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함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로서, 계량적인 방법으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임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하며, 측정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이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줌.
- 성과지표의 가장 주된 기능은 재정사업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성취하려는 목표와 실제 달성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면서 사업담당자가 자원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 또한 사업 당사자들이 사업의 핵심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며, 이해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함⁷⁾

2. 예술인적자원 성과관리 현황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외부평가로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진흥기금평가 등을 수감하고 있으며, 내부평가로는 기초사업평가,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집중평가대상지원사업(예술행사지원), 집중평가대상지원사업(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및 AYAF), 일반지원사업 등을 수감하고 있음

〈표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부평가 수감현황

구분	평가명	평가기관	평가대상사업	주요평가내용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획재정부	단위사업	-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이행내용 평가 - 사업계획-집행-성과 단계로 구분하여 공통평가지표 적용
2	복권기금사업 평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문화나눔 사업	- 문화나눔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3	보조사업 운용평가	기획재정부	5개 단위사업내 기초사업	- 단위사업내 특정사업 지정 존치 여부 심사
4	정부업무평가 (총리실부처과 제특정평가)	국무총리실	단위사업	-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지표 설정의 적절성과 이행내용 평가
5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문화체육 관광부	비전 및 전략개발	- 사업전략, 사업운영체계 진단 - 문제점 지적 및 개선과제 제안
			세세부사업	- 단위사업, 세세부사업별 성과목표, 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이행내용 평가 - 사업계획-집행-성과 단계로 구분하여 공통평가지표 적용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문예진흥기금사업성과지표개발을위한성과요인분석연구.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문예진흥기금사업성과지표개발을위한성과요인분석연구.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표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평가 수감현황

구분	평가명	평가방법	주요평가내용
1	기초사업평가	기초사업 (전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집행, 성과단계로 구분하여 공통평가지표 적용, 전수평가 - 사업별 성격을 반영한 특성화평가지표 일부 적용 - 기초사업 지속 타당성 등 종합평가
2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외부전문기관 용역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사업 서면 및 현장평가
3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외부전문기관 용역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사업 서면 및 현장평가 - 전체사업 PDCA 관점 분석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4	집중평가대상지원사업 (예술행사지원)	외부전문기관 용역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사업 전수 서면 및 현장평가 - 별도 특성화 평가지표 적용 심층평가 - 개별행사 관객만족도 표본조사 실시
5	집중평가대상지원사업 (예술전용공간활성화 지원 및 AYAF)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사업 전수 서면 및 현장평가 - 별도 특성화 평가지표 적용 심층평가
6	일반지원사업	책임심의위원, 외부전문가, 사업담당자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사업 중 현장실사 가능 사업의 사전 선정에 의한 표본평가 - 사업계획, 집행, 성과단계로 구분하여 공통평가지표 적용
		책임심의위원, 사업담당자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지원사업의 성과보고서를 평가자료로 전수평가 추진 - 사업계획, 집행, 성과단계로 구분하여 공통평가지표 적용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문예진흥기금사업성과지표개발을위한성과요인분석연구.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평가 현황 및 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지원목표에 따른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사업 하부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술위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의한 평가, 위원회의 자체평가제도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내부평가는 예술위가 지원한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위주로 진행되어 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외부의 평가는 주로 기관운영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예술위가 설립, 출발함에 따라 자율성 신장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에 의하여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2006년부터 실행하였음.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의 목적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에 대응한 책임감 강화 및 기금지원의 효과성 제고에 있음. 또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재원의 적정 배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 평가대상은 기금운용 전략,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기초사업으로 구성됨.

〈표 15〉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대상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초사업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문학창작지원*	문학창작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사이버문학광장운영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지원	—
	공연창작지원	—
	창작매체, 소통지원*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예술가소풍공간지원 예술정간물발간 및 조사연구 활동지원
	예술전용공간활성화지원*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AYAF)지원	-
	민간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	민간국제문화교류지원 국제예술특집행사지원
	국제교류 거점프로그램 지원*	해외예술가교류거점개발운영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문화기관 협력지원	-
문화예술공간운영	아르코미술관 운영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운영 공연예술인큐베이팅프로그램 지원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대상 문화나눔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 진흥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문화예술홍보 및 간행물 발간*	문화예술홍보,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예술나눔기부활성화(기부금사업 포함)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원로문예인복지지원
	공공미술기반사업	

□ 평가체계는 기금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원인(요소)인 ‘전략평가’와 사업운영의 결과인 ‘사업평가’로 구성됨.

- 평가부문의 체계적 구성을 통한 성과 창출 활동의 연계성 확보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외부평가지표 연계, 활용을 통한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표 16〉 문예진흥기금 평가체계 기준

평가부문	평가내용
전략평가 (Driver)	비전, 목표, 전략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전략」 평가지표 활용
사업평가 (Result)	사업에 대한 계획-집행-성과의 연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고객만족도 등 경영 활동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평가지표를 「재정사업1 자율평가」 지표로 일원화

자료: 이립 외(2012), 「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5. 참조 재구성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전략평가”는 3개의 평가지표 - ① 비전 및 전략개발 ② 주요사업 추진계획 ③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지표에 가중치가 부여됨.

〈표 17〉 전략평가 부문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전략평가	비전 및 전략 개발	45
	주요사업 추진계획	45
	개선과제 이행 충실성	10
합계		100

- “사업평가”는 평가대상인 단위사업 및 기초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이며, 기타 사업 실적 작성을 위한 항목임.

- 사업별 특성화 지표는 계획된 성과지표 외에 해당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량 또는 비계량 지표 2개를 설정함.

〈표 18〉 사업평가 부문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계획 (25)	사업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5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성과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집행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5
성과 (45)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5
		4-2 평가결과(개선과제)를 충실히 환류(이행)하였는가?	10
		4-3 사업별 특성화 지표 설정, 평가	·
		① 사업 효과성 관련 특성화 지표	5
		② 사업 효과성 관련 특성화 지표	5
전체 합계			100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제3절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

1. 질적 연구방법론 개요

가.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

-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정성적 연구)는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임. 질적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는 무형자료라고 하며, 연구대상의 양적 측면에 주목하는 양적연구에 대비되는 개념임.

〈표 19〉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 정의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Corbin, 1961)	통계적 절차나 기타 계량화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닌 이외의 것으로 연구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삶, 체험, 행동, 감동, 느낌, 사회운동, 국가 간의 상호작용 등에 적용되는 연구방법”
크리스웰 (Creswell, 2005)	질적연구는 사회적 또는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론적 연구 전통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연구과정
조흥식 외(2005)	연구자가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들을 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
황성동(2006)	질적조사는 양적·계량적 조사방법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양적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귀납적·해석적 조사방법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으로서,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적 실증주의 혹은 논리실증주의를 거부하는 일련의 입장

- 양적 연구방법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정된 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측정하여 자료 간 비교나 통계 축적을 가능하게 하며, 표준화된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간결하고도 개략적으로 나타난 변수들 간의 상관성 혹은 인과관계, 빈도 등을 분석하여 손쉽게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주제에 대해 깊이 상세한 연구를 요구하며, 특정한 분석의 범주에 따른 제한이 없이 제약이 없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함. 또한 양적 연구방법과 대조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나 사례에 대하여 풍성하고도 구체적인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른 연구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연구된 사례나 상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화의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한계도 있음.

- 양적 연구에서 타당성이 측정을 위해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는 도구에 의존하는 반면, 질적 연구의 신뢰성은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기교, 능력, 엄밀함 등에 달려 있으며, 바로 사람(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됨. 즉 연구대상을 관찰하는 기술이나 상술하는 내용 등이 모두 사람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임.

〈표 20〉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연구과정에서 연구자 관점에서의 특징적 차이

비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의 초점	양(얼마나 많이)	질(본성과 본질)
대표적 언어	실험, 경험, 통계	현지작업, 민속학적 주관, 자연적, 경험근거
표본	대표본, 무작위, 대표성	소표본, 임의적, 이론적
자료 수집	도구 사용	연구자가 직접 수집
자료 분석	연역(통계이용)	귀납(연구자의 분석)
연구 결과	정확, 좁은 범위, 환원	포괄적, 총체적, 확장성
질적 연구의 역할	준비단계에서 사용	행위자의 해석과 탐색수단
연구자/대상자 관계	없거나 멀거나 간접적	매우 긴밀하고 직접적
연구자의 입장	외부자적 입장	내부자적 입장
이론과 연구관계	미리 확정된 상태	그때그때 달라짐
연구의 전략	구조적	비구조적
발견의 성격규정	보편타당적	개체적
사회적 실체의 상	정적, 행위자 외부에 존재	과정적, 행위자에 의해 구성
자료의 성격	견실, 신뢰적	풍부, 심층적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표 21〉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비교

구분	양적 조사	질적 조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유통성 적음 -설명적 성격 -구체적인 이론적 배경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역할 -비교적 큰 표본 -비교적 구조화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방법, 연구 디자인 유통성 -가설없이 시작 -탐색적 성격 -학습자로서 연구자의 역할 -작은 표본 -자연스러운 실제 환경
자료수집방법	개입, 실험, 구조화된 설문지	관찰, 심층면접, 개인 기록의 분석, 참여관찰, 포커스그룹인터뷰
척도활용	빈번히 활용	낮음
목적	주로 가설 검증	주로 어떤 주제, 관계 및 패턴 발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 산출 -재정지원, 출판 용이 -하드 데이터 구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적, 풍부한 사실 발견 가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조사설계 및 자료 수집의 유통성 -작은 표본에도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이지 못한 성향 -조사연구의 장이 덜 자연스러움 -모든 결과를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이라는 인상 -조사결과 일반화 어려움 -효율성 입증, 실천 미흡 -재정지원, 출간 어려움

나. 질적 연구 방법론 개요

- 질적 연구 방법론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과학적인 접근 방법(양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인식의 증대, 과학철학자들의 연구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반성의 촉구, 1960년대 후반의 현상학과 관련된 사상의 확산 등의 요인이 주요 배경이 되었음. 이후 질적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관찰(Observation),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개인 기록의 분석,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있음.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지만, 심층면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참여관찰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함.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참여관찰이 병행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임. 그 외에도 사진유도기법이나 담론 분석 등도 질적 사례연구의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방법으로 활용됨.

- 주요 특징으로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 강조, 사건·행동 등을 그것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이해, 과정적 측면의 강조, 융통성과 비구조적 성격 등이 있음. 따라서 양적 조사가 주로 가설을 검증하는데 용이한데 비해 질적 조사는 주로 특정한 주제, 관계 및 패턴을 발견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2〉 질적연구방법론의 특징

특징	LeCompte&Schensul (1999)	Marshall&Rossman (2006)	Hatch(2002)
자연스러운 상황(현장에 초점을 둔 밀접한 상호작용을 위한 자료의 원천)	○	○	○
자료수집의 주요 도구로서 연구자			○
말 또는 이미지 등의 다양한 자료 원천	○	○	○
귀납적, 순환적, 상호작용적 자료분석	○		○
참여자의 관점, 그들의 의미, 주관적 시각에 초점	○		
사회적-정치적/역사적 맥락 내의 또는 문화적 렌즈를 통한 인간 행동과 신념의 구성		○	○
엄격하게 미리 형성된 실제라기보다는 유연한 설계		○	○
기본적으로는 해석적 탐구-연구자는 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과 독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을 반영		○	
사회현상에 대한 총체적 관점		○	○

자료: 김미곤 외(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3.

-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주된 도구가 된다는 것이며, 연구 대상자와의 라포(rapport)⁸⁾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가가 질적 연구의 핵심임.

8) 라포르(rapport), 라포 또는 라뽀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생기는 상호신뢰관계를 말하는 심리학용어이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든지 어떤일이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거나,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상호 관계를 말한다. 원래 프랑스어의 '가져오다', '참조하다'에서 나온 말이다. 특히 심리치료, 교육, 치료상담 등에 많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대상과 '라포르'를 형성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의사소통은 언어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 생리적 차원에서 동조화 되거나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울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무의식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또한 질적 연구는 나선형적 연구 절차를 가지고 있음. 즉 연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문제가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정되고 다듬어지게 됨.

다. 질적 연구의 유형

- 질적 연구의 유형 간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주요 유형으로는 전기,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표 23>과 같음.

<표 23> 질적 연구의 유형

	전기(생애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초점	개인의 삶을 탐구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이해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	문화적, 사회적 집단을 기술하고 해석	단일사례 혹은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학문적 기원	인류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학, 평가, 도시연구, 기타 사회과학
자료수집	주로 면접과 문서	10명까지 오랫동안 면접	범주가 '포화'되고 이론을 상술할 수 있을 때까지 20~30명과 면접	현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6개월~1년) 머물면서 주로 관찰, 면접, 부수적으로 인공물 활용	자료수집원이 다양 : 문서기록, 면접, 관찰, 물리적 인공물
자료분석	· 이야기 · 발현 · 역사적 내용	· 진술 · 의미 · 의미 주제 · 경험에 대한 일반적 기술	· 개방코딩 · 축코딩 · 선택코딩 · 조건 매트릭스	· 기술 · 분석 · 해석	· 기술 · 주제 · 주장
내러티브 형식	개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묘사	경험의 '본질'을 기술	이론 혹은 이론적 모델	집단 혹은 개인의 문화적 행동기술	'사례' 혹은 '사례들'에 대한 심층연구

자료 : Creswell, J. 저, 조홍식 외 공역(200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학지사, p.91.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라.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

- 현장연구에서 연구자가 구사하는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심층인터뷰)과 참여관찰, 기록(현장노트) 외에도 문헌조사, 담론분석, 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문서나 기록에 관한 고찰 등을 포함하며 다양함. 그 중에서 면담과 참여관찰은 인류학에서 현장연구 방법론이 확립된 이래로 현장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정착됨. 여기서는 인터뷰, 참여관찰, 현장노트의 크게 3가지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개념과 특징, 수집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함

1) 심층인터뷰

- 인터뷰는 일종의 대화(conversation)로서 상호 공통의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대화하는 사람들간에 서로의 관점을 상호 교환하는 것임. 질적연구에서 인터뷰는 연구자와 특정한 연구 대상자 사이에 전개되는 대화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 상호작용 상황에서 지배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대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⁹⁾.
-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면할 수 있는 인터뷰 상황의 유형은 매우 다양함. 면담이 공식적인 사전 요청을 거쳐 성립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공식적 면담과 비공식적 면담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면담 중에 연구자가 던지는 질문들이 사전에 꼭 짜였는 지 아니면 반대로 전혀 미리 짜인 틀 없이 자유분방하게 진행되는 형태인지에 따라 구조적 면담, 비구조적 면담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조적 면담과 비구조적 면담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짜인 틀이 있으면서도 면담 대상자의 이야기 내용에 맞추어 연구자가 수시로 임의의 질문들을 추가하는 형태를 반구조적 면담이라고 구분하기도 함. 심층인터뷰의 주요 유형은 <표 24>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이렇게 분류 방식에 따라 인터뷰 유형을 세분화하더라도, 어떤 것이 해당 연구에 부합하는 방식이고 아닌지 확연히 구분짓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위험할 수 있음. 연구 대상자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제반 조건들과의 연관 속에서 최대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질적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므로, 현장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들을 융통성 있게

9) 이용숙 외(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조각, p.144.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구사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질적 연구는 대상자들과 라포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연구라는 점에서, 어떤 연구 대상자와 초기에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매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대화 밖에 못 나누었다가, 라포가 형성됨에 따라 현장연구 후반기에는 비형식적이고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음¹⁰⁾.

〈표 24〉 심층인터뷰의 유형

구분	주요내용
비공식 대화면접 (informal conversation interview)	- 가장 개방적인 면접 형태로서, 관찰 과정 중에서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에 계획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상호작용에 용이함
면접지침 접근법 (interview guide approach)	- 면접에 대해 미리 계획하여 개방적이지만 비공식 대화 면접보다는 더 구조화된 면접 지침을 가지고 관찰하는 면접법에 해당함. 이 방법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면접자의 편견을 줄일 수 있고 면접 후 자료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에 더 효과적임 - 고도로 구조화된 면접법의 경우 면접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면접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질문의 준비 등 융통성이 없다는 단점과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 대화면접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표준화 개방형 면접 (standardized open - ended interview)	- 면접에서 하게 될 질문을 미리 정확하게 써놓고 순서와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면접하는 방법임 - 면접자의 영향과 편견을 최소로 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응답자와 포괄적으로 면접을 추구할 시간이 없을 때 유용한 방법임.

- 인터뷰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구 대상자의 자연스런 행동방식의 관찰을 보완해주는 방법으로서 병행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임. 즉 연구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시에 참여관찰을 최대한 수행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장연구에서의 인터뷰는 가능한 한 정보제공자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장소에서(가정, 일터 등)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장소에서 관찰하여 얻는 각종 맥락적 정보를 통해 연구자가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연구 대상자가 말한 내용에 맞추어 후속질문 혹은 나아가 예상할 수조차 없었던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는 데 단서가 되어주기도 함.¹¹⁾

10) 같은 책, p.145

11) 같은 책, p.146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의 삶의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선입견 없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즉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차이 그리고 깊이있는 자료를 얻는 것은 인터뷰를 하는 연구자가 어떠한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음. 그래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시 인터뷰 대상자에게 던지는 질문에도 일종의 기술이나 전략이 동원되게 됨.
- 또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진술에 있어 일관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거나, 회피, 부정확, 언어능력 부족, 불안정한 감정상태, 편견 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함. 이를 위해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면접의 시작과 끝에 혹은 기본정보와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여야 함.
- 연구대상자의 진술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때에 반응해주며 자신이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함.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질문 순서와 같은 답변순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면접질문을 머릿속에 구조화하여 질문의 앞뒤가 유연하게 왔다갔다 하도록 전체의 구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함. 무엇이 답으로 나왔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 실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심층인터뷰는 모든 질문을 구조화해서 모두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임. 연구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얼마든지 흘러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 대상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가가 중요함. 사고, 감정, 판단, 행동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답해졌고 무엇이 답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유연하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이해하며 다음 질문을 생각하는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비언어적 메시지도 매우 중요한데, 외모, 자세, 몸짓, 움직임, 표정, 눈맞춤, 목소리 등을 읽을 수 있어야 함¹²⁾.

2) 참여관찰법

- 참여관찰법이란 현장연구의 한 방법으로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의 삶의 현장에

12) 김진우(2012).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¹³⁾.

- 이는 연구자가 장기간에 걸쳐 연구 대상자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연구자 개인이 가진 가치나 이념, 취향, 기질 때문에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됨. 즉, 참여관찰법은 연구자 자신을 도구로 한 매우 체험적인 연구과정으로 ‘연구대상자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에 참여하고 또 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임.
-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현장에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곧 이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발전시켜나감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대상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관찰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¹⁴⁾”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자료수집 방법으로서의 참여관찰법은 우선 비참여적 관찰과 대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관찰은 학문의 기본적 도구 중 하나로 비참여 관찰이 연구자가 관찰대상자의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자료화하는 방법임 반면,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온몸으로 연구대상자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임. 참여관찰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대화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며 머리로 사고하는 등 전 과정을 포괄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연구 자료가 됨¹⁵⁾.
- 이러한 과정은 연구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관찰자로서는 얻기 힘든 심층적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연구자가 낯선 사회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재사회화’, 또는 ‘재문화화’ 과정기도 함.
- 또한 현장의 물리적 환경과 현장 구성원들의 생활방식, 상호작용, 의례, 사건, 서고 등을 자연스러운 일상적 환경에서 파악하여 그 사회의 구성, 작동방식 및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됨. 이렇게 일상에 장기적

13) 이용숙 외(2012)., pp.102-103.

14) 같은책, p.104.

15) 같은책, p.105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의 존재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됨.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부자적 시각(native point of view)을 얻게 되며, 이렇게 획득한 내부자적 시각을 연구자 자신의 시각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참여관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시각이 바뀌기도 하고, 종종 관찰 대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됨¹⁶⁾

- 참여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가 수행되는 환경 속에서 관찰자, 즉 연구자의 참여 수준임. 참여 수준이란 구경꾼의 위치와 완전한 참여(full participation) 상태를 양극단으로 놓고 좌우로 참여 정도에 따라 관찰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함¹⁷⁾. 이는 단순히 관찰자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님. 참여의 정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자가 구경꾼으로서 연구를 시작했다가, 점진적으로 현지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 완전한 참여자로서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가 연구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참여자에서 물러나서 구경꾼위치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참여관찰에서는 관찰하는 과정과 인터뷰하는 과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참여관찰을 통한 현장 노트는 비공식적이며 자연스러운 인터뷰, 정보제공자가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묘사하는 것에서 얻는 정보,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격한 것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¹⁸⁾.
- 참여관찰에서 참여의 성격과 수준은 평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사회, 문화, 정치적 그리고 대인관계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상적인 것은 참여자들의 특징, 담당자-참여자 상호작용의 특성, 연구 주제나 평가 대상 프로그램의 사회-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의도된 연구 활용자들의 정보에의 욕구가 고려된 연구 환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를 산출해낼 수 있는 참여의 수준을 세례하고 협상하는 것임.

16) 같은책, p.106.

17) 홍수정(2012), p.27.

18) 같은 책, p.28.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3) 현장노트

- 참여관찰 과정에서 연구자가 기록한 현장노트는 질적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임. 에머슨 등(Emerson et al.)은 현장노트를 "현장에 진입하거나 근접해서 만들어진 기록물. 여기서 근접한다는 것은 현장노트가 기술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건, 경험, 상호작용과 다소간 가까운 곳에서 작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노트는 방금 관찰한 사건, 사람, 장소 등을 기록으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얹혀 있는 사회 현실세계를 글자로 축소하여 보존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검토, 분석, 성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¹⁹⁾
- 연구자의 방법론적 성향에 따라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선택이 가능함. 예를 들어, 현장노트가 잘 다듬어진 설명 기록에 삽입되어 분석될 수 있는 원자료(raw data)로 간주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거나 분석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록물의 성격을 지니기도 함. 또한 현장이 이미 관찰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인지 아니면 관찰자가 진입하여 구축해가는 성격의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²⁰⁾.
- 현장노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구대상 또는 관찰대상의 행동이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기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선택임. 현장 조사에서 상황이나 연구대상을 묘사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상황이나 연구대상을 비판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현장노트는 연구자의 통찰, 해석, 분석을 시작하고 환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현장 조사 중 발생한 통찰과 영감은 현장 조사 자료의 일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통찰과 영감은 현장노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함. 또한 현장노트에서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관찰 대상자의 활동을 기술하는 것 외에 그때그때 이해되었던 것에 대한 해석은 밑줄, 괄호, 별표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해석을 표시하는 작업은 참여관찰 이후 연구를 정리, 분석할 때 가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될 것임²¹⁾.

19) 제니퍼 메이슨(2002), 「질적연구방법론」, 나남, p.145.

20) 같은 책, p.146.

21) 홍수정(2012), pp.30~31.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2.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 사례 검토

- 질적 연구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인류학은 현지조사라는 대표적인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인간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여 왔음. 서구에서는 인류학에서 사용해온 현지조사 또는 문화기술지가 사회학을 포함한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근대에는 언어학 분야에서도 기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담론분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오랫동안 의존해온 심리학의 경우에도 최근, 특히 담론분석 및 내용분석과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둔 질적 방법을 선호하는 비판적 학파들이 형성되고 있음. 인본지리학과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도 사례연구방법을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비교적 신생학문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 연구와 문화연구에서도 질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²²⁾. 한국에서도 2000년을 전후로 질적 연구방법이 인류학 외에도 간호학, 소비자학, 여성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또한 최근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구술사 연구방법이 알려지면서 사회복지학, 체육학, 예술 분야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²³⁾.
-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질적연구로 논문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질적연구에 대한 시각도 더 긍정적이 되었음. 그러나 대개 이들 연구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결합한 삼각기법(triangulation)을 사용하거나,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²⁴⁾.
- 예술 분야에서 질적 연구 측면의 선행연구는 역사학, 문화인류학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구술사의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 방법 등에 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2) 제니퍼 메이슨(2002), 질적연구방법론, 나남.

23)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4) 같은 자료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표 25〉 예술 분야에서의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제목	주요 내용
최해리 (2012)	무용구술사를 통한 새로운 한국근현대무용사 쓰기의 가능성 모색	○ 기존의 문자 자료에 의존하는 무용사 서술 방식에서 나아가 근현대시기를 거쳤던 무용가들의 무용구술사를 통해 한국 근현대무용사를 위한 새로운 역사쓰기의 가능성 모색
김현정 (2010)	무용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 구술사의 활용과 과제 모색	○ 무용사 연구에서 구술사의 중요성, 활용법에 중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며, 제도적, 교육적, 무용과 안무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용 구술사의 활용과 과제를 탐구하여 무용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
이호신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예술통보관의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운영현황	○ 구술사의 학문적 의의 검토 및 예술위 구술채록사업의 배경과 추진 현황, 활용 및 성과 등을 분석
Chloe Preec e (2012)	Branding and the creation of value : an exploration of artistic careers in the visual arts market	○ 마케팅 특히 브랜딩 관점에서의 경력에 관한 문헌 고찰 및 예술가의 '상품'에 어떻게 가치가 부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술가 경력 조사 ○ 런던과 홍콩 예술시장에서의 예술가들의 경력 경로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관계들을 통해 가치가 어떻게 공동으로 형성되는지를 보여줌
Chloe Preec e (2011)	Identity and Branding in the Boundaryless Career: An analysis of visual artists' career trajectories,	○ 예술가의 경력, 그리고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적 정체성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브랜딩을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함 ○ 예술가들의 경력 경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그들이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 모델에 어떻게 적응하며,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 구조를 탐색해가는 지 보여줌

□ 예술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구술사에 대한 논의와 해외 연구자료에서 예술가의 경력 경로에 대한 질적 연구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계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구술사에 대한 논의를 다룬 선행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예술통보관의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이호신(2007)의 연구와 무용사 연구에 있어 구술사 활용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한 최해리(2012)와 김현정(2010)의 연구가 있음.

제2장 예술인적자원관리를 둘러싼 환경검토

- 이호신(2007)은 구술사의 학문적 의의, 예술위의 구술채록사업의 배경과 추진 현황, 활용 및 성과 등을 분석함.
- 최해리 (2012)는 무용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용가의 시각을 외면한 채 서술자 중심적 시각에서 기술되고, 무용사적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만 나열하며, 춤의 실체에 대한 서술이 결여되어 있는 기존의 한국무용사 문헌들을 비판하며, 근현대 무용사 서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구술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방법론과 활용범위를 제시함.
- 김현정(2010) 또한 기존 무용사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의 도입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구술사가 무용사 연구에서 왜 중요하며, 무용사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며 제도적, 교육적, 연구대상과 주제 측면, 무용과 안무 측면, 구술사 자료 분석과 해석 측면에서 구술사의 활용과 과제를 모색함.
- Chloe Preece 는 두 편의 연구를 통하여, 예술가의 경력 경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한 예술가의 작품 또는 경력에 어떻게 가치가 창출, 부여되는지를 탐구하였음. Chloe Preece(2012)는 마케팅 특히 브랜딩 관점에서의 경력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고 예술가의 ‘상품’에 어떻게 가치가 부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술가의 경력을 조사함. 런던과 홍콩 예술시장에서의 예술가들의 경력 경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관계들을 통해 가치가 어떻게 공동으로 형성되는지를 보여줌. Chloe Preece(2011)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적 정체성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브랜딩을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예술가들의 경력 경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그들이 ‘무경계 경력’ 모델에 어떻게 적응하며,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 구조를 탐색해 가는지 보여줌.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제1절 : 예술인적자원의 양적·질적 성과에 대한 이해

1. 예술인적자원 양적·질적 성과유형 및 성과지표 분석
2. 예술가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질적 성과관리의 필요성

제2절 : 예술가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방향

1. 질적 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
2.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방향
3.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위 및 목표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제1절 : 예술인적자원 양적·질적 성과에 대한 이해

1. 예술인적자원 양적·질적 성과유형 및 성과지표 분석

-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 유형화에 앞서, 문예진흥기금 성과관리시스템 및 기존 연구에서의 계량적, 정성적 성과 지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함.

가. 문예진흥기금 단위사업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성과 지표

-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대상 5개 단위사업 중,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 측면에 대한 연구추진을 위해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²⁵⁾.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창작활동 촉진과 발표공간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예술교류지원을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행되는 사업임.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의 성과지표는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수혜자 만족도’, ‘관람객수’, ‘평균 창작 작품수’, ‘공연장(공간)가동률’로 구성되어 있음.

〈표 26〉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명
문학창작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수(명)
	평균창작작품수(건)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수혜자만족도(점)
	평균창작작품수(건)

25) 이립 외(2013), 『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28.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평균관람객수(명)
공연창작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평균창작작품수(건)
	평균관람객수(명)
창작매체·소통 지원	예술가의 집 만족도(점)
	평균 창작품수(건)
	예술가의 집 이용자수(명)
예술전용공간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평균창작작품수(건)
	평균관람객수(명)
	공간가동률(%)
예술행사 지원	고객만족도(점)
	평균창작작품수(건)
	평균관람객수(명)
	수혜자만족도(점)
아르코 영아트프론티어 지원	1인당 평균 수상 및 초대실적(건)
	1인당 평균 창작작품수(건)
민간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평균창작작품수(건)
	평균관람객수(명)
국제 교류거점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만족도(점)
	해외창작거점공간수(개)
	국제교류파생사업효과(%)
국제 문화기관 협력지원	교류협력국가수(개)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개)
	협력사업 추진건수(개)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단(2013), 『2012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보고서』.

-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기금사업 평가보고서는 각 사업별 지표의 한계와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²⁶⁾.

〈표 27〉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성과지표

사업명	지표의 적절성 평가
문학창작지원	- 사이버문학광장 누적회원 가입자 수는 결과지표이기는 하지만 창작과 향유의 양 측면에 걸친 특성을 가짐으로써 '창작'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사업 중에 작고문인선집 발간지원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량적 근거 제시 미흡함.

26) 같은 책, p.38-39.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문학광장 및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관련 성과지표가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곧, 사이버문학광장이나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사업은 문학창작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이 강조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는 예술활동 및 작품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본 사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는 실험성과 다양성과는 관련성이 낮은 지표로 구성됨. - 지원 대상 만족도나 평균창작작품 수, 평균 관람객수 등은 문학창작지원 사업의 지표와 대동소이하여 본 사업의 지원 취지를 명확히 살리고 있지 못함. - 특히, 평균 관람객수와 같은 성과지표는 작품의 실험성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 대중성에 대한 지표로 더 가까워 사업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지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에 맞게 대체,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연창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창작 지원사업의 목적이 '우수'창작물 지원에 초점이 있는지, '창작기회'조성에 초점이 있는지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창작물에 대한 지원이라면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나, 위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며, 개발된 지표는 주로 일반적인 창작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의 공연 창작 지원사업 성과지표에 가까움. - 현 성과지표에서는 '평균관람객수'를 지원대상자의 예술적 완성도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람객수가 작품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계량적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이 우수한 창작초연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면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시에 사업목적에서도 창작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창작매체·소 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가 창작매개/소통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사이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예술가의 집 이용자 수나 예술가의집 이용 만족도는 예술가의 창작을 매개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지 않고, 단순한 공간이용과 관련된 측면의 지표로 '사업목적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 - 마찬가지로 평균창작품 수는 예술가의 집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창작품 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평소 창작활동을 많이 하는 예술가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평균창작품 수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부적절함. -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매개하고 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공간운영이나 온라인정보서비스 제공, 발간물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이 어떻게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매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예술전용공간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각 이질적 장르들의(문학, 시각, 연극, 무용 등) 공간가동률 일률 적용으로 인한 부적합성으로 성과평가 기준의 모순이 도출될 우려가 있어 성과지표의 보다 정교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문학의 경우 공간가동률의 의미가 다른 예술장르와 달라 직접적 비교가 어렵고 이를 다른 장르에 실적 합산할 시 산출정보의 왜곡현상이 우려되어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p>보다 적절한 지표설정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가동을 기준의 차별화 적용(문학창작공간과 공연장 가동률 상이)과 평균관람객 기준의 모호함, 수혜대상 기관에서 통보된 실적위주의 과다산정 방지 강구 등을 포함한 합리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예술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경우 일반적인 예술문화공간 및 예술인 지원의 형태와 같이 많은 창작물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창작품 생산이 47개 사업에 2,544건이라는 많은 수치가 말해주듯 지역축제의 행사성 레퍼토리 공연은 그 자체가 예술단의 고유작품으로 창작의 의미도 있을 것이나, 통상적 개념의 무대창작 활동이라 평가받기는 어려워 생산수치를 인정하기 곤란함. 이러한 것을 시각분야와 동일한 관점에서 측정하여 오류가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어 보다 정교한 지표측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특성과 기능적 차이가 반영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창작 작품 수만으로 지표 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다작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1개의 단일 작품이라도 킬러 콘텐츠 여부에 큰 비중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표설정이 보강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지원 취지상 창작 작품 수 양 적인 요소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적 평가요소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함.
민간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가 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인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써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를 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할 경우 여타 기관의 국제교류사업과의 차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임 - 사업의 목적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작 작품의 수나 평균관람객수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람객의 수가 예술작품의 질적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지표 정의 및 측정 산식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 지표 산식에 있어서 전체 지원 사업 건수로 분모를 설정하여 지원 단체 별 창작여건 개선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작품의 품질 조사를 통해 산출 가능한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 - 국제적 경쟁력 강화 여부에 대한 성과 지표 보완이 필요함
국제 교류거점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교류 파트너의 만족도(또는 평가) 및 파견 예술가의 해외 체류기간 중의 예술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듯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산식에서 제시된 국제교류연계사업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측정 산식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국제 교류 연계 사업 건수는 2년을해당 기간으로 하고 국제교류 지원 사업 건수는 1년만을 해당기간으로 함에 따라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움 - 파견 예술가의 해외 체류기간 중의 예술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 국제교류사업 파생효과 산식의 명확화가 필요함
국제 문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조직)의 글로벌 창작역량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평가지표의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협력지원	개발이 필요함 - 교류협력 국가수와 교류협력국제기구수가 증가할수록 협력사업 추진 건수도 그에 상당하게 증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구조를 비율구조 [협력사업 추진 건수 / (교류협력국가 수 + 교류협력국제기구 수)] 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과 지표 측정 산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명확화가 필요함
------	--

- 특성화지표를 통해 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한 객관화된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점이나,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와 환류 시스템 개선 등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행 노력으로 평가됨.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는 작품을 통한 파급효과 등도 정량적인 지표(유료관객 비율, 관객 수 등)와 함께 성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어떤 작품의 파급효과를 작품이 초연된 후부터 언제까지로 인정해야 할지, 작품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지표를 삼아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위원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지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²⁷⁾으로 평가하고 있음.

나. 문예진흥기금 「영아트프론티어지원사업」의 계량적 성과 항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부터 예술인 지원 수혜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 2012년에 진행된 「한국예술위원회 예술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²⁸⁾」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일부를 활용해서 지원사업 수혜자 특성 관련 파일럿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정보화 단계를 검토, 향후 수혜 예술인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에 보다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영아트프론티어 지원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의 계량적 성과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분석 대상인 “영아트프론티어 지원사업”은 차세대 중견 예술창작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대표적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으로서 수혜자 중 2000년~2011년까지

27) 이립 외(2013), 『12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114.

28) 추미경 외(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89.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보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하였음. “영아트프론티어 지원사업” 선정자는 1기(79명)와 2기(85명) 모두 164명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지원 결정금액은 39억 7천 5백만 원임.(1인당 평균 지원금액: 약 2천4백만원)

〈표 28〉 영아트프론티어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2009~2011)

구분	선정자			지원결정금액 (단위: 백만원)				
	1기	2기	합계	1기		2기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문학	1	24	25	10	10	240	228	488
시각예술	19	14	33	233	236	173	164	806
음악	13	10	23	169	172	125	119	585
무용	13	9	22	167	169	127	120	583
연극	12	10	22	156	156	116	110	538
전통예술	16	11	27	205	201	140	133	679
다원예술	—	6	6	0	0	75	73	148
예술일반	5	1	6	65	61	12	10	148
합계	79	85	164	1,005	1,005	1,008	957	3,975

- 사업성과 분석을 위하여 고려된 계량적 성과항목은 발표작품수, 발간물, 공연/전시/기타 행사, 관객(독자)행사참여자수, 관람객 수이며, 항목별 주요 내용 및 한계, 개선점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29〉 영아트프론티어 지원사업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계량적 성과항목

성과항목(지표)	주요 내용
발표작품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작품 수」 항목을 통해서는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의 작품 창작여건 개선’, ‘지원금액 당 작품 창작 건수’ 등의 성과를 도출해 볼 수 있음. - 그런데, 발표작품 수 자체만을 통해서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예술인의 작품 창작여건이 개선됐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며, 지원사업 참여 이전의 작품창작 실적에 관한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검토 가능함. 현재 지원사업 참여예술인의 연도별 작품실적에 관한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어 비교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발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물의 종수와 부수로 구성되는 발간물 항목을 통해서는 발간물의 종류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향후 발간물 항목에서 홍보(언론홍보 활성화, 홍보방식의 다각화 등), 학술활동 활성화 등의 성과와 관련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위해서는 발간물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등록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연/전시/기타행사(세미나, 강좌, 연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전시/기타행사」 항목을 통해서는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실적'과 관련한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음. -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에는 공연, 전시 및 기타 행사와 관련된 실적으로 개최횟수와 기간만을 수록하게 되어 있어, 행사의 규모나 수준, 국내외 인지도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르별 특수성을 고려한 실적의 판단에 제한이 있음. - 따라서 장르별 예술활동의 종류와 수준 등 장르별 특수성이 반영된 공연/전시/행사에 관한 개최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관객(독자) 행사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독자) 행사 참여자 수」 항목을 통해서는 해당 행사의 규모와 성격, 수준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유발도' 측면에서의 성과를 파악해볼 수 있음. - 관객(독자) 행사 참여자 수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 유발도 측면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단편적이어서 유의미한 성과분석을 만들기 어려웠음. - 국내외 사회적 관심유발도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언론에서의 관심(예: 언론보도 건수, 보도매체 종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관람객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동원」 항목을 통해서는 관람객의 수나 성격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수혜자의 대외 인지도 향상', '수입 증가' 등의 성과를 파악해볼 수 있음.

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가 인식도조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4년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도 조사 및 분석'²⁹⁾ 연구는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사회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이 예술가의 창작활동 및 창작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³⁰⁾의 내용은, 예술가 경제 및 자존감, 사회적 영향, 문예진흥기금의 지속성, 사업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예술가의 인식도 조사를 통한 문예진흥기금의 영향 및 효과 분석』.

30) 기금사업에 참여한 3,139명을 대상으로 9월 29일~10월 12일까지 2주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378명이 설문에 응답. 그 중 기금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38명의 예술가가 설문에 참여하였음.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표 30〉 문예진흥기금의 영향에 대한 예술가 인식조사 지표

문항	세부문항
예술가 경제	예술가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
	예술가의 작품제작이나 활동에 기여
예술가 자존감	예술가의 삶의 질 향상
	예술가의 예술적 성취
	예술가의 자아실현
	예술가의 창작 욕구 해소
사회적 영향	예술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제고
	예술과 일반국민의 소통 및 교류
지속성 확보	기금의 존립 필요
	예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중요성
	예술위를 통한 지원사업 체계 지속
	예술 발전을 위한 기금 확충 필요
기금사업 만족도	기금지원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절차 참여의 용이
	기금지원사업 정보 및 안내의 충분성
	기금지원사업의 지원의 접근성 용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 금액 규모의 적절성
	기금지원사업의 다양성
	기금지원사업의 예술가에게 유익함
	예술위의 예술행정 전문성
	기금지원사업 담당자의 신속한 문제해결
	기금지원사업 담당자의 친절도
	기금지원사업 담당자의 예술가 인격 존중
	예술위 기금지원사업의 신뢰성
	기금지원사업에 대체적으로 만족
	기금지원사업에 재참여 의사
	기금지원사업의 타인 추천 의향
전반적 효과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기여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갈등치유 및 통합
	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 예술가 인식도 조사의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질적 성과와 관련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음

- 문예진흥기금이 예술가 자존감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은 예술가의 질적 성과측면과 매우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예술가의 질적 성과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예술가의 자존감에 기여한 바에 대한 조사 문항은, 예술가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통한 예술적 성취에 대한 기여도, 자아실현과 창작욕구 해소에 대한 기여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에 대해 평균 5.5점 정도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이 파악됨.

- 예술가 경제상황에 기여도는 문예진흥기금이 예술가 경제상황과 창작여건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조사
-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여도는 기금이 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5.82점, 또한 예술과 일반국민의 소통 및 교류에 대한 기여도는 평균 5.78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도출되어 문예진흥기금의 사회적 효과와 영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음.

□ 즉, 예술가 자존감,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여,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여에 대한 문항(지표)을 통하여 지원하는 예술가에 대하여 지원기관이 기대하는 질적 성과에 대하여 유추해볼 수 있음. 이러한 정성적, 질적 측면의 성과에 대한 측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양적인 측정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문예진흥기금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예술가 인식도 조사에서 주요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예술가 연령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기금의 지속적 필요에 대해 더 중요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분야 종사기간이 10년 이하가 11년 이상보다 기금사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즉, 대체로 경력이 짧은 신진예술가의 경우 기금사업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예술가의 연령이 높은 경우 기금의 지속적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 필요가 중요함을 시사함.
- 한편,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의 기금을 통한 자존감이 비수도권의 예술가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문예진흥기금 수혜경험이 없는 예술가 집단과 1회 경험한 예술가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가 주목할 만함.

- 수혜경험이 예술가가 그렇지 않은 예술가에 비해 기금을 통한 예술적 영향이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기금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 따라서 기금의 수혜는 예술가의 경제, 예술가의 자존감, 예술의 사회적 영향 및 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필요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과임.

라. 예술인적자원의 양적/질적 성과 지표

-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성과지표들을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적 측면의 성과와 계량화할 수 없는 정성적 측면의 성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양적(정량적) 성과지표	질적(정성적) 성과지표
1. 발표작품 수 2. 발간물 3. 예술활동 실적 4. 활동 횟수(공연/전시/기타행사) 5. 관객(독자) 행사참여자 수 6. 관람객 수 7.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 예술가 자존감 - 삶의 질 향상 - 창작활동을 통한 예술적 성취 - 자아실현 - 창작욕구 해소 2.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여 3.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여

- 객관적이고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정된 양적지표의 경우, 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적절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 개발의 근거 및 적절성 문제와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예컨대, 관람객 수만으로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움. 관람객 수에 의한 성과는 공연의 규모,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호응도, 인지도, 작품 성공 여부, 작품성 등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마니아나 초청티켓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도 존재함.
- 문예진흥기금 예술가 인식도 조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 질적 측면의 성과 역시 성과 유형으로서의 논리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질적 성과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정성적 지표일지라도 질적 측정이 아닌 계량적 측정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2. 예술가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질적 성과관리의 필요성

- 공공기관에서의 성과평가는 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 정도를 측정하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성과평가를 위한 것으로, 주로 계량된 지표에 근거하여 양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양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관측 가능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양적 평가의 한계가 논의됨. 일반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평가에서도 양적 평가만으로는 그 내용적 수준을 가늠하거나 어떤 과정으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³¹⁾.
- 질적 연구(평가)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때에도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착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전반적 이야기를 기술함으로서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결과 혹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있음. 프로그램이나 정책, 그리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점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한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음³²⁾.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계량적인 결과물이 얼마인지를 환산하여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 이상으로 참여자들의 경험, 인식 등을 파악하여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측정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반영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효율성과 성과 측정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논의된 것은 십여 년이 넘었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하는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 및 그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의 특성상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화/계량적 지표나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많이 지적됨. 문화예술분야에서 규격화된 평가지표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작성 및 예술성 측정은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질적

31) 홍수정(2012), p21-22

32) 홍수정(2012), p.23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성과 유형화가 요구됨.

-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존의 성과평가 자료들은 문화 예술기금에 따른 사업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질적 성과 측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비롯한 예술지원사업의 성과 측정에 있어 질적 요소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하지만(문화체육관광부, 2013; 김 진, 2013; 문화예술위원회, 2012)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 제시와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임.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부 및 외부 평가들을 살펴보면, ‘예술’이라는 분야의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창작 작품수’, ‘관람 객수’, ‘수혜자(이용자)만족도’ 등의 산출/결과(정량)지표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출이나 실적 나열 중심의 성과 관리는 지원사업의 최종 목표인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와 관련되는 창작, 창작 환경 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보고서의 성과지표 적절성 평가에서도 이러한 질적 평가요소 도입이나 장르적 특성과 기능적 차이가 반영된 성과지표의 개발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³³⁾. 또한 지원사업의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혜자 중심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정책의 성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음. 하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산출(output)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영향(impact)임. 예술지원사업의 목표는 영향인데, 예술지원으로 얻어진 1차적 결과물인 ‘산출’ 위주로만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³⁴⁾.
- 1차적 산출이 있다고 해서 지원사업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창작 환경이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얼마나 주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문화예술지원의 선순환적인 장기적 관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지원예산이 본래 목표로 하는 가치와 효과를 이루기 위해 알맞게 집행되었는지, 수혜자들에 대한

33) 문화체육관광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단(2013), 『2012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보고서』 pp38~42

34) 김정수(2007)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즉, 정책 수혜자(예술가)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과 측정 기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제2절 : 예술가의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방향

-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에 대한 유형화란 우선 양적 성과에 대비된 질적 성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어떻게 질적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양적 성과 측정과 대비되는 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한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예술가의 질적 성과의 유형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연구방향을 추진하도록 함.
- 첫째, 질적 성과의 유형 개발
 - 근본적으로 무엇이 질적 성과인가에 대한 연구 추진방향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예술가의 질적 성과와 예술가가 기대하는 질적 성과를 파악하여 그 접점을 분석하여 질적 성과를 유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함.
- 둘째, 예술가의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 예술가의 질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예술인 특성에 맞는 사례조사 방법론을 도출하고 실제로 파일럿 조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위의 두 가지 연구추진방향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예술인적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성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술가의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의 토대가 될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지표를 도출하도록 함.

1. 질적 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

- 앞서 1절에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도 조사 및 분석’에서 예술가 자존감,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여,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여가 예술가의 질적 성과와 연관되는 성과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원기관이 예술가에 대하여 기대하여 질적 성과 유형을 유추해볼 수 있었음.
- 여기에 인터넷 검색, 각 기관의 문헌 및 보도자료, 신문 및 잡지 등의 매체에서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다루어진 기사 및 인터뷰 내용 등에서 질적 성과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인지도 및 평판 측면, 관객과의 소통 측면에서의 성과유형이 추가되어 다음 표와 같은 질적 성과 유형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표 32〉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 유형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 유형	구성요소
예술가 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 창작활동을 통한 예술적 성취 - 자아실현 - 창작욕구 해소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의 경제적 환경의 개선 - 작품제작이나 활동의 지속
인지도 및 평판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 인지도 - 전문가의 평가
관객과의 소통/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과의 소통 확대

2.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방향

- 예술 분야에서 질적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음. 질적 성과 측정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실제로 질적 성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질적 성과 측정의 방법론적 가설을 실제 적용한 선행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의 방향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대상과 이들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방법론의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보완, 수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에 있어 단계별로 범위를 확장해 가는 틀을 기반으로 질적 성과 유형화의 방법론적 가설을 세우고 실제 파일럿 조사의 실행(4장에서 논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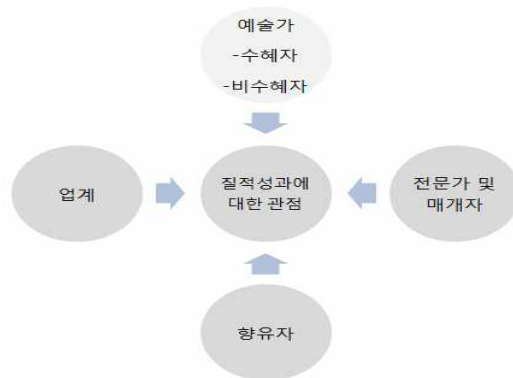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과 함께,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향후 후속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궁극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 될 것임.

가.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대상 범위

-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대상은 우선 가장 일차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 예술가가 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예술가의 발화만 고려하는 것은 자칫 지원사업의 수혜자로서 예술가의 입장이 강조되어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지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혹은 받지 않은) 예술가에 대한 질적 사례추적연구도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예술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비평가나 문화예술 행정인력 등의 전문가 및 매개자, 향유자(관객) 등이 바라보는 질적 성과에 대한 개념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그 접점을 찾는다면 각각의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기울어질 수도 있는 성과 유형화의 한계를 많은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임.

[그림 3]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 즉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측정에 있어 질적 성과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 따라서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로써, 예술가, 업계 종사자들, 비평가나 문화예술 행정인력 등의 전문가 및 매개자, 향유자 등이 바라보는 질적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수혜 예술가 대상 연구에서의 표집에 있어서 예술의 다양한 분야(장르)에 대한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르별 특성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 판단되면 보다 다양한 장르에서 장르별 상대적으로 소수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요인보다는 양적 혹은 질적으로 구분되는 성과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다수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사례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나.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

-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사례연구의 조사방법에 있어서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사이버 문화기술지(Cyber ethnography)의 여러 가지 질적 연구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음.
- 심층인터뷰는 질적 연구의 조사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임. 심층인터뷰 자체에서도, 기금을 직접 받은 수혜자(대표) 외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같이 인터뷰하는 방식도 가능함. 심층인터뷰가 주요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종 문헌자료(기사, 인터뷰, 기관 보도자료 등) 분석 및 인터뷰 현장에서의 관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이 병행될 수 있음.
- 참여관찰은 인터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의 진위나 맥락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조사방법임. 하지만, 시간적 측면(일정 기간의 필요)과 조사 대상자와의 관계나 연구자의 위치(대상 그룹 내에 동화되는 문제)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 포커스그룹인터뷰(FGI)는 토론 집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연구자가 토의주제를 제공하여 집단 토론 속에서 상호작용을 관찰, 기록하여 토론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임. 기본적으로 집단인터뷰라고 볼 수 있고, 면담자의 질문과 구술자의 답변보다는 토의 주제를 두고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주요한 자료가 됨. 초점집단 구성원들 간의 언어행위(구술)와 상호작용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관찰과 인터뷰에 비교할 때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며, 태도나 인식 조사에 적합함. 이러한 인위적인 연구 환경은 연구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주제나 연구 영역을 대할 때 보다 심층적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로서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음. 또한 같은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들의 경우, 위계 관계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사이버 문화기술지³⁵⁾는 인터넷 상의 현지조사라고 할 수 있음.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다른 종류의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가서 그 곳의 문화를 읽고 해석해내는 연구방법임. 사이버스페이스가 일상이 된 오늘날, 온라인 상에서는 이메일, 채팅, 게시판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니홈피, 블로그,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발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언어 행위들과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언어와 의사소통 행위는 ‘언설 공동체(speech community)’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역사를 갖고 있고 또한 공유된 의사소통 능력과 소재들을 갖는 개인들과 집단들이기 때문임. 연구자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웹 사이트, 커뮤니티, 카페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연구할 집단을 찾음. 연구할 집단이 정해지면 그곳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어 참여관찰을 시작하고, 게시판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이메일을 통하여 인터뷰를 함. 예컨대, 해당 예술가와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의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그것과 예술가들의 자기평가(인터뷰 내용)를 대차대조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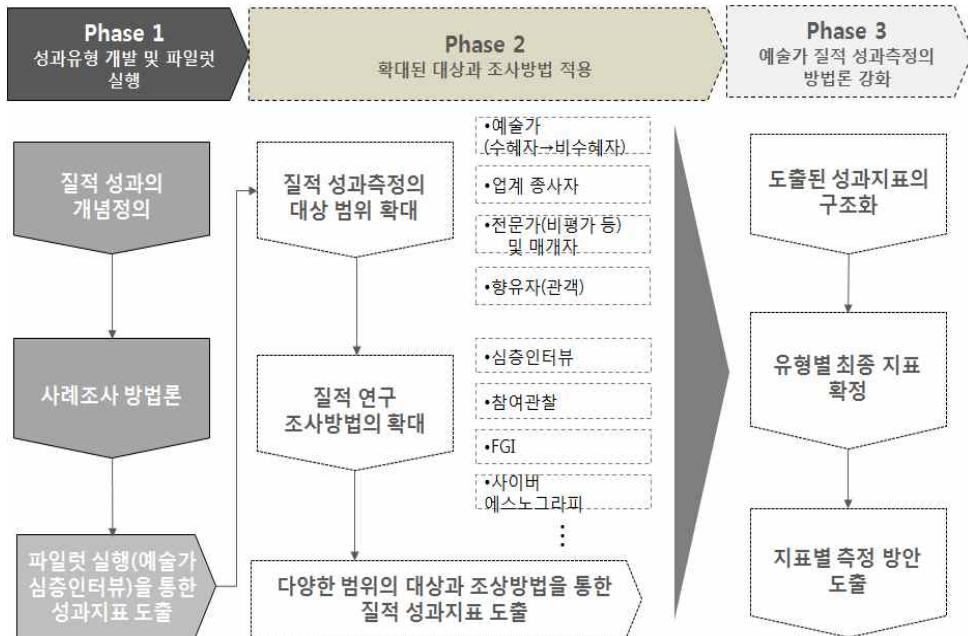
다.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프로세스

-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대상들과, 질적연구방법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방법의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보완, 수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5) 윤택림(2013). 사이버 문화기술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용함.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그림 4]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프로세스



3.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위 및 목표

-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질적 성과 유형화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예술가 질적 성과 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작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짐.
-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유형화는 하나의 예시로서 성과 유형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후속연구에서 어떠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가. 연구 범위

제3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 유형 및 사례조사 방법론 개발

-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사례연구의 조사방법으로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연구의 제반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주 연구방법으로 실시함.
- 심층인터뷰가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되더라도 각종 문헌자료(기사, 인터뷰, 기관 보도자료 등) 분석 및 인터뷰 현장에서의 관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이 병행될 수 있음.
- 사례추적 연구의 대상 범위에 있어서는 한국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공연예술 분야로 한정함. 공연예술 중에서도 장르별 특성 요인의 반응을 감안하여 연극과 무용이라는 2개의 장르에서 2~3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함.
- 후속연구에서는 각 대상별 샘플링을 통한 연구에서 모집단을 늘리고, 문화예술 전 분야로의 확대 및 장르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제안될 수 있음.

나. 연구 목표

- 문헌조사를 통한 계량적 성과 진단과 지원사업 수혜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성과의 정의를 본 연구의 주제로 함. 네 명의 예술가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적인 성과를 진단하고, 질적인 성과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향후 후속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함.
- 즉, 이번 연구의 주된 목표는 지원사업 수혜자의 발화(주관적인 자기평가 등)를 듣고, 이로부터 수혜자가 지원기금을 실제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과로 나왔는지를 양적인 수치 뿐 아니라 실제 질적으로 이들의 삶에, 특히 예술가로서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에 대하여 스토리텔링화하여 보여주는 것에 있음.
- 한국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수혜자 중 양적 성과가 증명된 중견 예술인을 선정하여 예술가 질적 사례추적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지원사업과 연동된 질적 성과를 유추하는 동시에 예술인의 성과 측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제1절 : 예술가 질적 성과 사례추적조사 설계

1. 예술가 사례추적조사 대상 선정
2. 예술가 사례추적조사 설계

제2절 :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사례추적 파일럿 실행

1. 예술가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2. 예술가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제3절 : 시사점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제1절 : 예술가 질적 성과 사례추적조사 설계

1. 예술가 사례추적조사 대상 선정

- 질적 사례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고 양화된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례에 대한 발견적 해석과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접근임(Yin, 2003).
- 예술가의 질적 성과 사례추적조사는 예술가와 관련된 공적자료가 지닌 계량적 측면과 사적 자료 추적의 매칭을 통하여 간과될 수 있는 무형적 성과(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경력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원사업의 경험과 예술인의 성장에 대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문화예술지원의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가. 연구 문제의 확인

-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예술위의 예술가지원사업이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으며, 이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 예술가들에게 질적 성과는 무엇인가?
 - 예술가의 양적 성과지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 지원사업 경험이 예술가의 경력경로에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는가?
 - 지원사업 경험이 질적인 성과 창출(질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 지원사업의 어떤 요소가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 지원사업 경험의 부정적인 요소(한계)는 무엇인가?
 - 향후 예술가지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나. 조사대상 예술가 선정

- 연구 참여 예술가 선정에 있어서 비확률 표집방법인 의도적 표집(purposeful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sampling)으로 접근하였음. 연구 환경 여건 상 공연예술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 대상 예술가를 선정하기 전 설정한 1차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33〉 심층인터뷰 대상 예술가 1차 선정기준

구분	사례조사 대상 예술가 선정
예술 장르	연극분야, 무용분야
참여 예술가 수	장르별 예술가 2명
선정기준	-3년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지원사업을 경험한 예술가 -신진 예술가였을 때 지원받아 현재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중견예술가로 성장한 예술가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예술가

- 공연예술 분야 중 ‘연극’분야와 ‘무용’분야로 두 장르가 선정되었으며, 각 장르의 예술가지원사업 수혜경험이 있는 예술가 후보군을 선정하여 다방면에서 수집된 사적자료 분석을 통해 사례추적조사에 적합한 예술가를 최종 선정함.
- 사례조사를 위한 대상의 최종 선정은 보다 유의미한 사례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적자료를 분석하였음.
 -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수혜자로서 지원사업 수혜 전후의 창작활동 및 창작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신진예술가지원과 중견예술가 지원 수혜경험 분석
 - 창작활동의 양적·질적 성과분석을 위한 창작경력 및 정기적인 활동 여부 분석
 - 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 및 예술계 안 인지도, 입상·수상 경력 분석
 - 예술가의 질적 성과와 발전가능성 파악을 위한 예술가의 고유의 창작영역 소유 여부 등
- 따라서 다음과 같은 2차 선정기준을 통해 연극분야, 무용분야에서 각각 2명의 예술가가 최종 선정되었음.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표 34〉 심층인터뷰 대상 예술가 2차 선정기준

선정기준	예술가 A	예술가 B	예술가 C	예술가 D
예술가지원 3년 이상 수혜경험	○	○	○	○
신진예술가지원 수혜경험	○	○	○	○
중견예술가지원 수혜경험	○	○	○	○
종사분야 수상경력	○	○	○	○
본인 고유의 창작영역 소유	○		○	○
매년/해당년도 창작결과물 발표	○		○	○
종사분야에서의 인지도	○	○	○	○
본인의 예술단체 운영	○	○	○	○
제자 및 후배 양성(교수직)			○	○
예술작품 평가경력(심사/평가위원)	○			○
해외활동 경력	○		○	○
예술가 협업 경력	○		○	○
본인의 창작공간 소유	○	○		
출판경력(칼럼 등)				○
예술가창작환경에 대한 관심	○	○	○	○
같은 분야 동료예술가의 인정	○	○	○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추천	○	○	○	○

다. 사적자료 및 심층인터뷰 분석 계획

□ 분석의 주요 텍스트인 원자료(raw data)는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구성

- 심층인터뷰는 대상 예술가를 직접 방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면접시간은 최소 2시간 소요
- 미리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지만, 질문지에 얽매이지 않고 인터뷰 현장 상황과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속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
- 인터뷰 외에도 참여관찰과 참여자의 협조 하에 관련 문서나 기록 등을 수집
- 예술가의 진술에 경청하는 태도로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예술가와의 라포(rapport) 형성에 주력, 예상외의 풍부한 진술이 나올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

- 질적 연구에서 분석의 목적은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문제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주제와, 자료 수집을 하는 동안 얻은 정보를 해석과 같은 방법으로 취사선택하고 분류하여 조직화하는 것임³⁶⁾.
 - 분석을 위해 심층인터뷰 녹취 내용과 메모를 전사하여 원 자료를 구성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비교방법으로 검토하며 자료를 분석함. 자료는 의미단위 분석, 범주화, 주제(핵심범주구성) 순으로 분석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됨³⁷⁾.
 - ① 연구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 추출
 - ②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
 - ③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의미를 재구성
 - ④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 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
 - ⑥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

2. 예술가 사례추적조사 설계

가. 심층인터뷰 내용 설계

- 예술가의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가들의 사적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인터뷰 내용과 진행과정을 설계함.
- 심층인터뷰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하며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진행함.
 - 첫째, 예술가지원사업의 경험 내용과 예술가의 질적 성장과의 연관성
 - 둘째, 예술가에게 있어 질적 성장의 의미
 - 셋째, 예술가의 질적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36) 김귀분 외(200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 현문사.

37) 같은 책.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표 35〉 예술가 심층인터뷰 질문 예시

1. 예술가지원사업의 경험 내용과 예술가의 질적 성장과의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은 어떠셨나요? -예술가지원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술가지원사업이 예술가로서의 삶(창작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예술가지원사업을 통해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술가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 경험이 있었나요? -지원을 받았을 경우, 스트레스는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예술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더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신진예술가와 중견예술가를 위한 예술가지원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외 활동에 있어 초기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예술가지원사업과 연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술가지원사업 방향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가지원사업이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예술가에게 있어 질적 성장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작품을 보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술가에게 질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창작활동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 것,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예술가로 살아오면서 좌절했거나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도 많이 하시나요? -예술가로서의 성취감, 본인이 예술가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예술가에게 관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작품을 보실 때 대중성과 예술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질적인 면에서 대중성과 예술성 중 어떤 면이 더 우수하다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술이,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예술가의 질적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예술가의 활동에 대하여, 공연 횟수, 유료관람객수 등의 양적인 부분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 다른 잣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술가도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술가의 창작역량, 작품성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한다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예술가의 성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예술가지원사업의 수혜 경험과 예술가의 질적 성장과의 연관성 관련 질문은 지원사업이 예술가의 경력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룸. 예술가가 지원을 받은 시기 예컨대 신진예술가 시절이었는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중진예술가 시기였는지, 즉 지원받은 시기의 예술가의 입지에 따라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창출해내고 어떤 점에서 부족하거나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 대한 질문은 창작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에 출발됨. 예술가가 창작 욕구를 풀어내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성공담과 실패담, 창작자로서의 희열을 통해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다룸. 나아가 예술가가 생각하는 질적인 성장의 개념과 정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건 및 예술가의 성장과 관객(대중), 사회와의 상관성 등을 파악함.
- 예술가의 질적 성과지표에 대한 질문은 기존 예술가지원사업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예술가의 활동실적(공연 횟수, 유료관람객 수, 발간물 등)에 대한 예술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적 성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유추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나. 예술가 심층인터뷰 추진전략

- 심층인터뷰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예술가 4인과 총 2회에 걸쳐 추진함. 한회의 인터뷰는 최소한 두 시간동안 진행하고 1차와 2차 인터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간격을 두어 1차 인터뷰 후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 예술가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두어 2차 인터뷰에서 보다 심층적인 내용 도출이 가능한 환경을 형성함.
- 심층인터뷰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터뷰 장소는 예술가의 창작활동 현장과 최대한 긴밀히 연관된 곳에서 진행되도록 하며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억양, 몸짓, 표정, 태도, 감정 등이 모두 자료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
- 본격적인 심층인터뷰 진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연구자료 분석의 원 자료(raw data)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확보를 위한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연구의 취지와 심층인터뷰의 주요 진행내용 및 인터뷰 자료의 활용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함.

□ 따라서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과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6〉 예술가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및 목표

	주요 내용	목표
1차	연구내용 및 취지 공유 지원사업 수혜경험 및 창작활동 성과 창작영역 및 창작환경 예술가의 경력경로와 지원사업의 연관성 예술가의 성과관리 방법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청을 통해 라포(rapport) 형성 기초 마련 -예술가의 양적·질적 성과 개념에 대한 이해 제고 -연구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 예술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여지 제공
2차	1차 인터뷰내용 공유 및 정리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 대한 의견 질적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예술계의 발전가능성, 비전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예술가와의 라포 형성 -보다 심층적인 진술 확보 -예술가 스스로의 활동경험을 통한 질적 성과에 대한 의견과 개념 정립 유도 -연구과정 및 결과 도출과정에 대한 동의

□ 심층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뷰를 통해 창출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권리, 무엇을 자료로 간주하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과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임. 따라서 대상 예술가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연구자가 원 자료를 해석할 권리, 그리고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자료와 비교 분석할 권리와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 출판되는 것에 대해 대상 예술가들의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차 인터뷰 시 1차 인터뷰의 진행된 내용에서 연구자가 해석하고 도출해낸 연구 결과물을 예술가와 공유하면서 연구주체에 대해 환기시키고 보다 깊은 공감대를 형성, 예술가가 조사대상이 아닌 연구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제2절 :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사례추적 파일럿 실행

1. 예술가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 예술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내용은 예술가지원사업과 예술가의 성장과의 연관성, 예술가 스스로 생각하는 질적인 성장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으며 예술가 질적 성과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었음. 심층인터뷰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음.

가. 예술가지원사업과 예술가의 성장과의 연계성

- 예술가지원사업의 수혜경험이 있는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으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창작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임.
 - 부족한 지원금일지라도 어려운 창작환경에서 시드 머니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금전적 부분에 대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상과 제작과정에 있어서도 창작물의 질적인 완성도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연극계의 경우 창작환경이 매우 영세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예술가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처우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초기에 비해 신진급 예술가와 중견급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있고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금이 작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금액은 되지 않아도 시드 머니차원에서는 힘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상업적인 연극이 아닌 소규모로 제작되는 공연들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죠. 그런 면에서 연극계의 부흥에 지원사업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요”(예술가 B)

“일단 재정적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나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원금이 충분히 않아서 공연 규모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좋은 점은 지원금을 신청하면 작품 프리뷰를 하게 되는데, 평소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구상하고 완성해보는 과정이 없이 작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일단 프리뷰를 진행하게 되니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작품 제작규모 파악, 실제 작품을 만들어갈 때 도움이 되요”(예술가 C)

- 또한 힘든 창작여건 속에서 지원금이 젊은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해 창작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답함.

“사실 예술가에게 지원금이란 것이 예술가 창작활동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은 늘 제작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반드시 예술가의 사비가 투입이 되죠. 그러나 힘든 창작여건을 고려하면, 작품의 연속성 면에서는 젊은 창작자에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예술가 A)

- 지원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적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 인적 네트워크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폭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하고 해외진출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면에서 예술가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파악되었음.

“예술가지원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초청공연에 참가하게 되면 그곳에서 인연이 되어 다른 축제로 연결되어 활동의 기회가 연결되고 그로인해 활동이 확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예술가 C)

- 반면 예술가지원사업의 부정적인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었음.

- 신진예술가일지라도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신진예술가들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의 고충과 성과위주의 선정기준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음.

“처음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되려면 신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실적이 없는 신진은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예술가 C)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지원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 해의 평가가 좋으면 다음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평가가 좋으면 지속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죠”(예술가 B)

- 같은 맥락에서 예술가의 실험성에 대한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가가 스스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창작환경과 인식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예술가는 한 번의 평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는 때로는 사고를 치면서도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고 또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죠. 꾸준히 성장을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해요”(예술가 C)

- 또한 지원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예술가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기획인력이 없거나 전체 인력이 부족한 작은 규모의 예술단체일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체감도가 큰 것으로 파악됨.

“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공적자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 100% 긍정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정해져있어요. 작품을 제작하다보면 반드시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작품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는 비용도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금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정산부분에서도 고충이 많은 편이죠”(예술가 B)

“예술가들이 직접 정산관련 부분도 정리를 해야 힘들어합니다. 예술가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해요. 작품에 몰두하게 되면 재정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죠. 예술가가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은 예술가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해요”(예술가 C)

나. 예술가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 위의 진술에 이어 예술가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예술가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이 있었음. 예술가들도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공통된 의견으로는 창작여건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수에게 주어지는 소액의 지원금 혜택보다는 소수에게 집중 지원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재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양한 예술가를 발굴해야 하니까 여러 개 문어발식으로 펼치는 경향이 있음. 관창은 좋은 예술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선별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켜보고 지원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라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예술가 C)

“예술가지원사업을 논할 때, ‘선택과 집중’ 혹은 ‘소액다건’ 지원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좋은 방향인지 생각합니다. 다수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것, 즉 다수에게 공정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액수가 보장된다면 그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적은 액수의 지원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열악함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나까요”(예술가 A)

- 신진예술가와 중견예술가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음. 신진예술가에게는 창작자로서의 활동과 예술적 개성보다 예술계로의 진입에 중점을 둔 지원방향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보다 신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하였음.
- 자기 영역을 확고히 구축해나가는 중견예술인에게는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며, 예술가의 창작역량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특히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도와주어야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심하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은 분명히 중요하고 신진 예술가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 주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요. 지원금이란 늘 일부이고 부족한 액수이기 마련이라 사비가 들어가게 되고, 사적인 투자 외에도 심적인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는 데, 그것이 신인일수록 심적인 부담감이 크죠”(예술가 A)

“중견예술가의 경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현재의 자리까지 온 것이기에 때문에 이제 ‘보호’에 가깝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그 안에서 또 걸려져서 용장이 나오고 대가가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시각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요. ‘중견’ 예술가라고 하면, 성과 때문이든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든 이미 많이 예술가들이 걸려진 후에 끝까지 남은 예술가들인거죠”(예술가 A)

- 지원사업의 최종목표는 예술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예술에 대한 관심증대, 예술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의 대중화를 위해 대가를 발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파악됨. 한명의 대가가 발굴되면 예술가들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면서 동반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저는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예술가를 발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발굴된 대가 한명이 예술계의 성장을 견인하면 예술가들의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해요”(예술가 A)

“외국의 경우 괜찮은 예술가가 등장하면 한명에게 집중되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하죠. 다른 예술가들은 불평이나 질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가 예술가를 배출해냈으니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좋은 방향이죠”(예술가 C)

- 그 외에도 효과적인 지원방향에 대해, 재정적 지원 외에 예술가들이 함께 장기간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 활발한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 제공 등의 의견이 있었음.

다. 예술가 양적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 예술가의 양적 성과를 무시할 수 없으나 예술가의 창작영역을 정량적인 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특히 예술가의 질적 성과를 논할 경우, 공연 횟수나 유료관람객 수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결같은 의견이 도출되었음. 양적 성과지표의 한계에 대한 연이은 지적이 계속되었는데 예를 들어 유료관람객 동원 수나 티켓점유율이라는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관행을 통해 보여줌.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특히나 유명 작품이라든지 상업적으로 이미 성공한 작품들의 경우는 공연 횟수와 유료관람객 수로 예술의 질적인 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예술의 대중화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예술가 D)

“대부분 가장 객관성 있는 실적으로 유료관람객 동원 수, 티켓점유율을 논하지만 사실 친인척 등의 인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평가 위원들과의 학연·지연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이미 평가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게 현실이죠. 또 예술가 스스로가 실적에 얽매어 주변을 통해 실적을 임의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하구요”(예술가 A)

- 양적인 성과를 대중의 호응도로 해석했을 때, 작품의 대중성과 파급효과 면에서의 성과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작품의 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

“해외유명작품이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의 경우, 공연의 규모와 공연회수가 많아 양적인 성과는 훌륭하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작품의 질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예술가 A/D)

“작품 횟수도 무시 못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니까 횟수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공연을 질적으로 봤을 때는 횟수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예술가 C)

라. 예술가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 대한 의견

□ 예술가의 질적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우선 무엇보다 예술가에게 질적 성장, 질적 성과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창작 경력, 지향가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질적 성장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음.

- 예술가가 가진 자기만의 색깔은 ‘예술가 고유의 창작 영역의 소유’ 유무로 판단할 수 있음. 달리말해서 고유의 영역을 갖는다는 것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예술성 및 질적인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예술가의 자기만의 색깔이란 자기만의 자아도취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다른 창조능력이나 독특한 상상력, 누구나 공통되게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술가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졌을 때, 질적으로도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죠”(예술가 A)

“예술가가 자기색깔을 갖는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예술가가 자기색깔을 갖췄다는 것은 예술가 스스로 지각능력이 있다는 것일 텐데 그것을 저는 ‘센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능력을 극대화해서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런 부분에서 센스가 있는 예술가는 그만큼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예술가 C)

- 예술가의 질적 성장측면에서 ‘동료 예술가와의 협업’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협업이란 같은 장르의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와의 작품구상 및 제작과정에서의 의견 조율과 서로의 창작영역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의미함. 나아가 타 장르와의 협업은 예술가 본인의 영역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부분을 흡수하는 편입니다. 다른 예술가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술가들도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예술적인 성취감도 느끼고 성장해간다고 생각해요”(예술가 C)

- 예술가의 성장은 ‘예술의 향유자(수용자)인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 면에서 관객의 호응과 작품을 통한 관객의 반응이 좋은 공연작품이 좋은 작품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저는 관객이 공연을 보러 갈 때의 마음과 공연을 관람한 후의 마음을 다르게 변화시켜주는 공연이 좋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적하거나 불쾌한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작품은 분명히 좋은 작품이죠. 그렇지만 관객을 울리든 웃기든 아니면 더 진지하게 만들든 공연을 본 후의 관객을 다르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예술가 D)

- 같은 맥락에서 좋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관객의 시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은 창작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러한 과정이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파악되었음.

“현대무용의 경우, 관객이 모르는 것만 보여주면 일단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다루려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 학생들에게 말해주곤 해요”(예술가 C)

- 심층인터뷰 대상 예술가들이 공통점 중의 하나는 창작활동에 있어 꾸준한 연구와 ‘새로운 시도’를 추구한다는 점임. 새로운 창작영역의 모색과 시도는 작품의 실험성과 발전가능성과 연결되어지며 작품의 질적 성숙과 예술가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짐을 드러냄.

“또한 안무가는 일반적 현상을 그냥 보고 놓치면 안 되고 어떤 장면을 보면 그것이 어떤 장면으로 구성되겠다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늘 말해줍니다. 연습실에서 몸 푸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해주죠”(예술가 C)

“저는 예술가가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시도 혹은 두려움에 대한 시도 등 물론 굉장한 정신적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통증이 수반되지만 새로운 시도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어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펼쳐가게 되죠. 그런 부분이 질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예술가 D)

-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창작영역에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술과 사회, 예술과 시대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은 예술가가 가진 생각과 관점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띤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예술작품의 시대반영’이란 측면은 예술성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음. 예술가의 질적 성장과의 연관성과 예술의 지향 가치적 측면에서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함.

“발레일지라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레는 그것을 반영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발레의 기본동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지한데... 작년에 해봤는데 제 느낌에 가능했고 주위 분들도 가능하다는 평을 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쪽으로 발레의 다양한 변화도 시도해보고 발레가 시대를 반영한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는 게 제게는 큰 매력이기도 해요”(예술가 D)

“예술가들의 제일 큰 사명은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사회의 경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예술분야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외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암울하거나 힘든 시기일수록 예술이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술은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해요”(예술가 D)

- 다만 사회와 시대를 표현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상이할지라도 모든 예술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은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작품이 사회의 이슈를 반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점임.

“예술가들에게 사회적인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데, 작품을 써서 사회와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적인 것들을 담아내기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시대를 담아내고 그 상황을 담아내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을 제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지 직접적으로 사회적 문제 자체를 이야기해버리면 예술 활동이 제한되고 어느 한 면에 국한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해석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관객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예술가 B)

“예술가는 사회의 이슈를 대변하거나 문화를 다루어야한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정치적인 색을 띠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봐오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예술가는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슈를 만들어야지 어떤 한 가지 색깔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예술가 C)

- 다른 한편 예술가지원사업이든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 시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반드시 예술가에게 보호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의견으로 ‘예술가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가 자존감이 보호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정치적인 의도나 권력으로 예술세계를 바꾸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술가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한 영향에 창작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죠”(예술가 D)

마. 예술가의 질적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예술가의 인지도’는 창작활동의 양적 성과와 동시에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 예술가의 대외적인 인지도는 예술계, 전문가 집단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중성으로 연결되어짐. 일차적인 해석으로 대중성이란 측면은 관람객동원 수라는 양적 성과지표로 가시화됨.
 - 반면에 예술성이란 측면에서의 예술가의 인지도는 질적 성과지표로서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술가의 인지도라는 것이 예술가의 작품성이나 성장했다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판단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객 정도를 가지고 질적 성장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예술가 B)

“세간의 인지도라는 것은, 집객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니아들,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인지도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질적인 성장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데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예술가 B)

“예술가의 대외적인 인지도, 사회적 영향력 등도 예술가의 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체에 실리는 기사 건수도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불명확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가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룹 가중치라는 부분도 존재하고요”(예술가 A)

“예술가의 인지도를 예술가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지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유명세를 질적 성장의 맥락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도나 유명세는 다분히 상업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작품의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지도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가 높거나 유명세가 높은 예술가가 질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곤란
하죠. 특히나 그런 부분은 관객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예술가D)

□ 예술가의 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객(향유자)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진술을 통해 도출되었음.

-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과 역할 측면에서 관객의 위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예술작품에 대한 관객의 호응과 소통은 창작활동의 방향, 작품의 성격뿐만 아
니라 창작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예술가에게 관객은 왕이죠. 그건 명확해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공유가 되어야 예술이라
는 이름을 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이란 예술가에게 동력의 한 축이
아니라 완전한 축인 거죠”(예술가 A)

“저의 경우, 예술가의 창작역량과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두 관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돌아가야 할 곳은 관객이기 때문이
죠. 물론 혹자는 그러면 너무 관객의 취향에 맞춰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고도 하지만 관객이 가장 확실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해요”(예술가 A)

“예술가에게 관객이란 양날의 칼이에요. 저에게 관객이란 작품을 어디
서 공연하는 작품인지 어떤 타이틀의 공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페스티벌이라면 철저하게 관객위주의 작품을 합니다. 페스티벌은 축제
니만큼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죠. 다른 측면의 공연이라면 관객의
반응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작품을 중점을 두고 내용적으로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구분이 확실하게 있어요”(예술가 D)

□ ‘예술작품의 대중성과 예술성, 사회성’에 대한 접근은 예술가 혹은 예술작품의 우위
를 가리는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으로 예술가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지향
가치에 따라 관점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음.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그러나 예술의 대중성, 예술성, 사회성은 창작활동의 본질적인 부분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는 동시에 예술가의 양적·질적 성과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임을 모든 예술가가 공감하였음.

“대중적인 작품과 사회성이 있는 예술작품은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아티스트 그룹이 좀 더 미래적이고 전위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성향이 강한 그룹들이 더 아방가르드하다는 느낌이 강하고, 탐미적이거나 드라마에 집중해 있는 그룹이 약간 옛날 세대같이 보이는 면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드라마가 강한 예술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 성향의 창작그룹이 있다는 것, 성향의 다양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객들도 인지하는 것이죠”(예술가 A)

“대중적인 작품과 화두를 던지는 무게감이 있는 작품 중 무엇이 더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죠. 공연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 안에서 여지가 남는 작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 또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공연들도 관객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작품의 ‘깊이’를 논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것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술이 가진 깊이와 격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예술가 B)

- 지원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작품을 평가하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예술적 안목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평가위원, 심사위원 인력 풀을 확장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자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이 파악되었음.

“저희 분야의 경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평가하는 분들이 또 대학 평가에도 오시고 그러죠. 분야가 좁으니 평가자 또한 많지 않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가나 예술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가를 하는 전문인력 풀을 확장하고 넓은 층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예술가 D)

- 그 외에 예술가의 질적인 성장과 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예술가 심층인터뷰를 추천하였음. 예술가의 작품 활동과 작품세계와 연결된 예술가의 정신자세 등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응답의 내용, 태도 등 예술가의 발화를 통해 어느 정도 질적인 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임.

“예술가의 성과를 측정한다면, 양적인 성과 외에 질적인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인터뷰도 하나의 평가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창작활동,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술가의 업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요”(예술가 D)

2. 파일럿 실행 분석 결과

- 예술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추적조사 대상자가 공통적이거나 중복적, 반복적으로 진술된 예술가의 질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질적 성과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한 질적 성과의 유형화가 가능함.

가. 예술가 질적 성과의 유형화

- 예술가의 질적 성과의 유형들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은 중복적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이고 반복적으로 진술된 내용들을 분석하여 나열하였음.

〈표 37〉 예술가 질적 성과 유형 범주화(예)

	질적 성과 유형	세부내용
1.	예술가의 자존감	-예술가 삶의 질 향상 -예술가의 자기만의 색깔/작품세계
2.	사회적 영향력	-예술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예술작품의 시대 반영
3.	경제적 여건 개선도	-경제적 환경의 개선 -창작 공간 및 기타 제반시설, 기자재 보유
4.	인적 네트워크	-예술가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 -인적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5.	대외적인 인지도/평판	-예술계에 미친 영향 -평론가 비평 -동료예술인의 평가 -입상 및 수상 경력
6.	창작활동에서의 작품성/실험성	-예술가의 새로운 시도 -다른 예술장르와의 협업
7.	창작활동의 지속성	-작품 활동의 연속성 -활동의 다양성
8.	예술가의 발전가능성	-예술가의 자체검열
9.	관객과의 소통	-예술가의 대중성 -관객의 반응 및 호응도 -마니아층 여부

□ 1~3번에 제시된 ‘예술가의 자존감’,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여건 개선도’의 경우, 예술위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지표(예술가 창조역량 강화사업 성과지표 및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사업 성과평가항목) 분석과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예술가의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³⁸⁾ 결과 분석을 통해 정성적 평가영역 즉 질적 성과와 관련된 유형을 추출하여 정리한 내용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성과유형과의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예술가의 자기색깔’과 특히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된 부분임.

38) 「예술가의 인식도 조사를 통한 문예진흥기금의 영향 및 효과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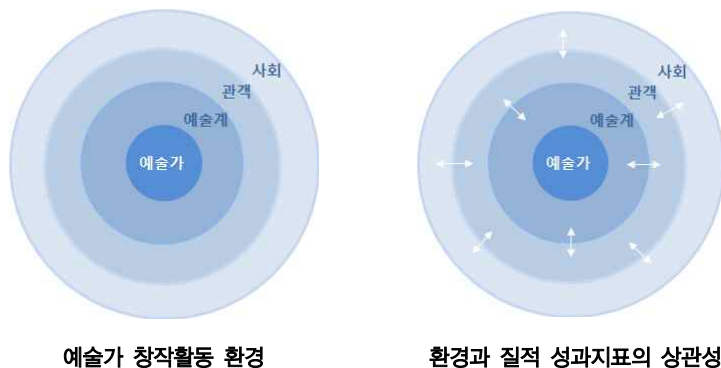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4~9번에 제시된 질적 성과 유형은 사례추적을 위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성과 유형으로 조사대상 예술가의 창작활동 경험과 오랜 경력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 연구에 참여한 예술가가 생각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증명된 질적 성과에 대한 응답 중에서 공통적으로 진술한 부분, 중복되고 반복되는 진술을 재해석하여 최종적으로 걸러진 예술가의 질적 성과 유형임.
- 예술가의 질적 성과는 한 가지 정의로 규정되어질 수 없으며 창작자로서의 예술가의 삶, 동료예술가와의 협업과 네트워크, 예술 향유자인 관객과의 소통과 대화 또한 이것을 둘러싼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형성되는 것임이 파악되었음.

나.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도출

- 위와 같이 도출된 질적 성과의 유형화를 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예술가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질적 성과의 유형은 예술가의 창작환경 안에서 서로 상호적인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예술가를 둘러싼 환경



- 예술가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둘러싼 환경은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짐.
 - 첫째, 창작활동을 펼치는 **예술가** 본인의 창작 영역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둘째,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예술가 군집으로 형성된 **예술계** 영역
- 셋째, 예술가의 창작물이 소통되고 공유되는 **관객** 영역
- 넷째,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창작물이 **사회**와 교류되는 영역

□ 예술가의 질적 성장은 각 영역의 범주 안에서 예술가 스스로가 설정한 예술적 목표와 지향점을 향한 신체적·정신적 움직임과 창작 활동 속에서 생겨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질적 성과 역시 각각의 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예술가의 질적 성과는 각 영역을 넘나드는 창작활동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

〈표 38〉 예술가 환경 영역별 질적 성과지표 분석 및 양적 성과지표 비교

영역	질적 성과지표		양적 성과지표
	대지표	세부지표	
예술가	고유의 창작 영역 소유	-예술가의 자기색깔(예술성) -예술가의 자존감	발표작품 수 발간물
	창작활동의 지속성	-경력의 지속성 및 연속성	
	예술가의 성장 가능성	-작품성과 실험성 -예술가의 자체검열	
예술계	인지도	-대외적인 평판 -예술계 발전 기여도 -언론보도 건수 -보도매체 종류(해당 장르/ 타 장르/예술 외 분야)	유료관람객 수
	입상 및 수상 경력	-전문가, 평론가의 인정	
	인적 네트워크	-동료 예술가와의 협업 -다른 장르와의 협업	활동 횟수(공연, 전시, 세미나, 출판, 기타 행사)
	예술계에 미친 영향	-예술계 기여도 -제자 및 후배 양성 -평가/심사위원 경력 -출판, 집필 경력	
관객	관객의 호응도	-관객의 반응 -마니아층 확보 여부	유료관람객 수
	예술의 대중성	-대중의 관심 유발 -예술의 파급력	관람객동원 수
사회	예술의 사회성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예술작품의 시대 반영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 영역에 해당하는 대지표와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1) “예술가” 영역

- 예술가 영역에서 도출된 질적 성과지표는 예술가 스스로의 창작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예술가 고유의 창작 영역의 소유, 창작활동의 지속성, 성장가능성 등이 이에 해당함.
- 예술가 고유의 창작영역은 예술가가 가진 자기만의 색깔이나 독특한 표현방식을 말하며 예술성을 의미함.
 - 창작활동의 지속성은 예술가 경력의 연속성으로 의미하며 예술가의 오랜 경험을 질적 성장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양적 성과지표(발표작품 수, 발간물 등)로 평가되어짐.
 - 예술가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술가의 새로운 창작활동에 대한 시도와 실험성과 함께 예술가 스스로 본인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창작과정에 대한 검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을 지표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추적조사가 필요함.

2) “예술계” 영역

- 예술계 영역에서 도출된 질적 성과지표는 예술가 사이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예술계 안에서 쌓아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대외적인 인지도, 입상 및 수상 경력, 인적 네트워크와 함께 보다 크게는 예술계에 미친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질적 성과지표로서 대외적인 인지도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관객의 호응(대중성)과도 직결되며, 작품성에 대한 인정, 예술계 발전 기여도로 해석되기도 함. 한편 언론보도 건수, 보도매체 종류뿐만 아니라 유료관람객 수 등의 정량적인 지표와 상호보완적으로 측정이 가능함.
 - 입상 및 수상 경력은 심사위원, 평론가 등의 전문가들의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술가의 인적 네트워크는 동료 예술가와의 협업, 타 장르와의 협업 경험을 통해 예술가의 질적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인지도’와 같은 맥락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제자 양성, 평가/심사위원 경력, 출판/집필 경력으로 측정될 수 있음. 동시에 예술가의 활동 실적(공연, 전시, 세미나, 기타 행사 등)의 양적 성과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

3) “관객” 영역

- 관객 영역에서 도출된 질적 성과지표는 예술가의 창작작품과 향유자인 관객과의 소통과 연결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관객의 호응도, 작품의 대중성 등을 들 수 있음.
 - 질적 성과지표로서 관객의 호응도는 관객과의 소통정도로 해석될 수 있고 마니아층의 형성 유무, 관객의 관심유발 정도 즉 대중성을 의미함. 관객과 관련된 예술가의 성과는 유료관람객 수, 관람객 동원 수 등의 양적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음.

4) “사회” 영역

- 사회 영역의 질적 성과지표는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창작물이 사회와 교류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 즉 예술의 사회성을 의미함.
 - 심층인터뷰를 통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이나 예술작품의 시대반영이란 부분이 예술가의 질적 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 파악되었으나 예술의 사회성은 결과지표로 해석되기보다 과정과 방법적인 면을 더욱 중시하여야 할 것임.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제3절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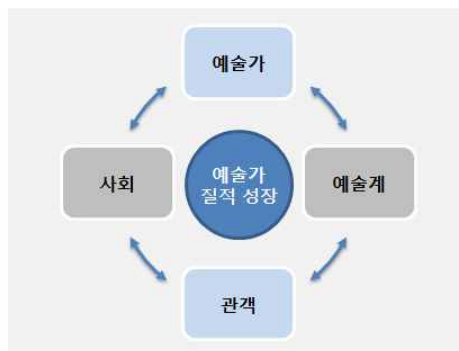
□ 양적 성과지표의 한계 증명과 예술가의 질적 성과 개념 이해

- 예술가 사례추적조사 파일럿 실행을 통해 도출된 성과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술가의 양적 성과의 극명한 한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임.
- 동시에 파일럿 결과 분석을 통해 예술가의 질적 성과의 개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질적 성과를 유형화를 시도한 점이며 질적 성과가 창출되는 예술가의 환경과 그 속에서 상호 유기적인 교류와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예술가의 질적 성장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질적 성과의 유형화를 통한 양적 성과지표 보완 및 예술가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 질적 성과 유형화를 통해 유추된 질적 성과지표는 현재까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온 정량적 평가항목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양적 성과지표만으로 측정하기 힘든 정성적 부분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예술가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를 둘러싼 환경의 각 영역 즉 예술가, 예술계, 관객, 사회영역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예술가의 질적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예술가 성과에 대한 결과지표뿐만 아니라 대가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임.

[그림 6] 예술가 질적 성장 조건



제4장 예술가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파일럿 실행

- 진정한 예술가의 질적 성장은 예술가를 둘러싼 환경의 한 영역에 국한된 창작활동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며 각 영역 간 지속적인 교류와 유기적인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제5장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관리 방안 및 정책제언

제1절 : 예술가 질적 성장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1.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 추진방향
2.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로드맵

제2절 :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 예술가의 성장 단계 및 유형을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
2. 장기적인 성장관점에서의 예술가 지원정책 추진

제5장

제1절 예술가 질적 성장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1.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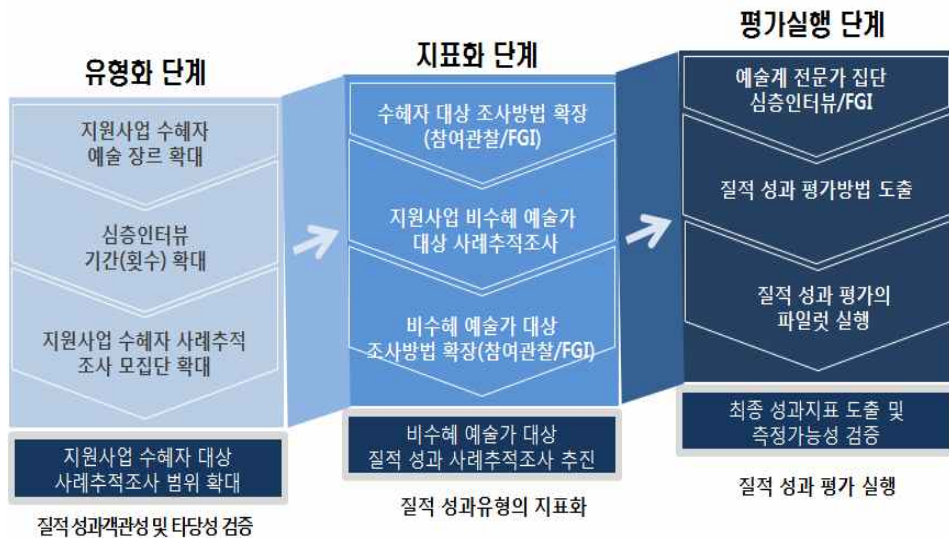
-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에 있어 본 연구는 파일럿 연구로서 그동안 분석되지 않았던 예술인적자원의 양적·질적 성과 관리의 현황과 질적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론적 가설을 토대로 실제로 한국예술위원회 예술가지원사업 수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사례추적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는 질적 성과 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첫 단계 연구로서의 시작단계로서 예술가 사례추적조사를 통해 질적 성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질적 성과를 유형을 도출하여 질적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화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연구여건상 제한된 대상 모집단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선택된 질적 연구조사 방법으로 실행된 파일럿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며, 지속적인 사례 추적발굴을 통하여 질적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로드맵

-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구축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이 질적 성과의 ① 유형화 단계, ② 지표화 단계, ③ 평가 실행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제5장

[그림 7] 질적 성과측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로드맵



가. 1단계 : 유형화 단계

- 질적 성과의 유형화 단계는 지원사업 수혜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추적조사를 심화하는 단계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질적 성과유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강화해가는 과정임.
- 즉, 유형화 단계에서는 지원사업 수혜 예술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사례추적조사에 있어서 예술 분야(장르) 및 모집단 규모, 인터뷰 기간 및 횟수를 확대한 연구들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연구, 무용이 아닌 다른 장르가 선택되어 다루어지거나, 공연예술 뿐 아니라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고르게 포함하면서 연구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 다양한 분야(장르)로 연구 범위가 확장된 연구의 경우, 장르별 특성 요인이 반영되는 성과 유형들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제5장

질적 성과 유형화가 가능할 것임. 반면,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요인보다 양적 혹은 질적으로 구분되는 성과 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사례연구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양한 장르보다는 해당 장르에서의 모집단 규모가 확대된 연구가 추진 될 수 있음.

- 심층인터뷰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자연스러우면서 심층적인 정보를 포착하고자 할 때 라포 형성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라포 형성이 반드시 인터뷰 실행 횟수와 비례하여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전에 라포 형성이 이미 이루어진 연구 대상자가 아니라면 1~2회의 인터뷰 횟수는 연구 대상자와의 라포가 겨우 형성되려고 할 때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심층적인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뷰 횟수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인터뷰 전체 기간과 횟수, 각 인터뷰 회차 사이의 간격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면밀한 고민과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2단계 : 지표화 단계

- 지표화 단계는 심층인터뷰 외에 다양한 질적 조사방법의 적용과 지원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수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받지 않은) 예술가들과의 사례 비교를 통하여 보다 객관성이 보완된 질적 성과 유형들을 도출하고 지표화하는 단계임.
- 우선, 1단계에서 실시된 심층인터뷰 뿐 아니라 보다 심도있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참여관찰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활용되거나 심층인터뷰와 병행되어야 함. 이와 같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을 통해 심층인터뷰가 가질 수 있는 ‘발화’에만 의존하여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예컨대 대상자의 생각이나 상황에 있어서 진위나 맥락 등을 이해할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이고 세심한 질적 성과 유형 도출이 가능하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원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수혜 예술가 뿐 아니라 비수혜 예술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이들은 지원사업 수혜 예술가들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질적 성과의 유형을 제시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질적 성과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될 수 있음.

제5장

다. 3단계 : 평가 실행 단계

- 평가 실행 단계는 이전 단계의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들에 대한 실제 평가 실행을 위한 단계로, 도출된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례추적조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실제 평가의 주체가 되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심사 및 평가위원, 지원기관, 문화매개자, 비평가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2단계까지의 연구 추진을 통해 마련된 예술가 관점에서의 질적 성과와의 접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측정 가능성을 판단함.
- 이로부터 최종 질적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성과 평가를 위한 파일럿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함.
- 예술가 질적 성과에 있어 당사자인 예술가와, 이들의 질적 성과를 판단,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상반된 입장에 있는 다른 그룹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실제 질적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의 실행에 있어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으로써 의미를 가짐.

제5장

제2절 예술인적자원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 예술인적자원의 질적 성과관리는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원 정책이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예술가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예술가의 질적 성장이 가능한 정책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질적 성과의 평가는 논의되어질 수 있음.

1. 예술가의 성장 단계 및 유형을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

- 예술가의 질적 성과는 지원의 시점에서 예술가가 성장해가는 단계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성장해가는 속도나 유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예술가 지원사업에서 각 성장 단계에서의 지원 문제, 즉 신진 예술가와 중견 예술가의 지원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 문제는 인터뷰에서도 많이 거론되었음. 신진과 중견에 대한 지원의 의미와 방향은 다르게 파악되어야 하며,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은 신진을 더 잘 도와줘야 한다거나 중진을 더 보호해줘야 한다는 경쟁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심하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지원금의 존재는 예술가에게, 특히 기반이 없는 신진 예술가에게 중요한 부분임. 하지만 지원금이 작품 창작을 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심각한 심적 부담감이나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특히 신진 예술가일수록 그 영향은 커지게 됨. 따라서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반면, 중견 혹은 소위 ‘대가’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접근이 요구됨.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한 보상이나 예술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보호’의 측면에 가깝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보장하는 리소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원사업과 연계된 질적 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견예술인이나 대가에 대한 지원정책에

제5장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신진과 중견, 대가가 나란히 지원사업의 경쟁구도로 놓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각 시점(단계)에 적합한 지원의 의미와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임.
- 또한 예술가의 성장에 있어, 모든 예술가가 똑같은 유형으로 성장하지는 않음. 지원 시점에 예술가의 위치 뿐 아니라 각각이 지니는 역량과 환경에 따라 성장의 속도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남.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패턴들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지원의 방향과 의미를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예컨대, 지원사업이 신진 예술가가 중견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촉매로 작용한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예술가의 질적 성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일 것임. 하지만 지원금을 수혜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이 비슷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 혹은 반대로 ‘대가’를 지원하여 지원금이 촉매로 작용했는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각각의 유형에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의 성과의 의미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2.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의 예술가 지원정책 추진

- 예술가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실패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술가의 질적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과정’의 측면은 중요한 요소가 됨. 따라서 예술가의 성과를 단기적인 지원의 틀 안에서 선불리 눈에 보이는 계량적 성과만을 평가하면서 지원사업의 효과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
-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인터뷰 질문에 대하여, 예술가의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예컨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술가를 발굴하였다면 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켜보고 지원하면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또한 지원방식의 문제와 관련, 그 비중의 크고 적음과 관계없이 재정지원이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연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몫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지원의 공정성 문제, 금전적 지원이 예술계의 열악함을 지속시키면서 예술 전반의 창작역량을 저하시키고 질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직접적인 재정지원에서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가의 자생력을 키우고, 예술가의 질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이는 창작 자체에 집중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워크숍이나 캠프 등 예술가들이 서로 만나고 창작활동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확장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지원. 예술가의 창작 의지나 성취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창작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술가의 자존감과 자기 색깔을 보호, 존중해줄 수 있는 정책환경의 마련 등으로 논의되며 추진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강익희(2011).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KOCCA포커스』, 2011-06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 김귀분 외(200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 현문사.
3. 김미곤 외(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병욱(2014). 「질적 연구유형별 정당화 논거 탐색」,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 24권, 1호, pp.55-76.
5. 김연정(2013). 안무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6. 김영식(2010).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인지도 분석 연구 : 민간전문합창단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논문.
7. 김예림(2007).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문화재단 모니터링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8. 김정수(2007).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0집, 2008.11, 163-191
9. 김진(2013).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개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6권 제3호, pp.83-106.
10. 김진우(2012).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11. 김현정(2010). 무용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 구술사의 활용과 과제 모색, 성균관대학교.
12. 문화체육관광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2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보고서』.
13. 박영정(2006). 『예술인정책 체계화방안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14. 박찬웅(2007). 예술세계 연결망과 예술기장 성과에 대한 관계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41집 4호, pp.280-317.
15. 양건열(2009). 『예술분야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문화관광연구원.
16. 이립 외(2012). 『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17. 이립 외(2013). 『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18. 이용숙 외(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조각.
19. 이호신(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의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운영현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3권, pp.105~130.
20. 장홍근(2012). 공연·무대예술인의 예술활동경력 및 증빙 실태와 함의, 『노동리뷰』, 2012년 7월호(통권 제88호), pp.55-73.
21. 정광렬(2008). 『예술분야 사후지원방식 평가·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 제니퍼 메이슨(2002), 『질적연구방법론』, 나남.
23. 최미숙(2012). 문화예술의 가치 및 효과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 심의기준 및 평가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4. 최범식(2013).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각예술인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5. 최해리(2012). 무용구술사를 통한 새로운 한국근현대무용사 쓰기의 가능성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참고문헌

26. 추미경 외(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7. 한국노동연구원(2012). 『예술인 경력증명 방안 연구 - 공연·무대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문예진흥40년지원정책연구(40년사)』.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201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초사업운영실적보고서.
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자체평가보고서.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문예진흥기금사업성과지표개발을위한성과요인분석연구.
32. 허은영 외(2012). 『문화예술인통계』, 문화관광연구원
33. 허은영 외(2010).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방향』, 문화관광연구원.
34. 홍수정(2012). 질적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질’적 자료 확보의 문제,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제3권, 1호, pp.21-45.
35. 황서미(2013), 문화경제학적 가치론에 입각한 문화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36. Chloe Preece(2012). 「Branding and the creation of value : an exploration of artistic careers in the visual arts market」, King's College London.
37. Chloe Preece(2011). 「Identity and Branding in the Boundaryless Career : An analysis of visual artists' career trajectories」, King's College London.
38. Eleonora Belfiore, Oliver Bennett (2010). 「Beyond the “Toolkit Approach”: Arts Impact Evaluation Research and the Realities of Cultural Policy-Making」,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Vol. 14 No. 2, pp. 121-142.